

가정 사역을 실패한 성공한 목회자?

[짧은 말씀 묵상집 (28)]

제임스 김 목사 나눔

가장 간교한 사탄은 이성 관계에서 간교하게 속임수로 사랑을 증오로 돌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암논은 그의 이복 여동생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아름다운 여동생 다말을 얼마나 사랑하고 (성경은 “몹시”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음) 얼마나 연모했기에 (성경은 “대단히” 연모했다고 말씀하고 있음) 결국 다말을 사모하다가 병까지 들고 말았을까요? 특히 암논은 다말이 “정숙한 처녀”였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어서 그녀를 몹시 사랑하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1-2, 현대인의 성경).

이러한 때에 암논에게 다가온 사람은 바로 그의 “대단히 간교한 친구” 요나답이었습니다(3절,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창세기 3장에서 “여자”(하와)에게 다가온 “뱀”이 생각났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뱀은 여호와 하나님에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창3:1).

가장 간교한 사탄은 암논이 다말을 몹시 사랑하고 대단히 연모하고 있었지만 그녀에게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그녀를 사모하다가 병까지 들고 있었을 때 대단히 간교한 요나답을 통해 암논에게 접근하여 그로 하여금 결국에 가서는 “이 어리석은 일”(12절)인 “그녀를 덮쳐 강간”하게 만들었습니다(14절, 현대인의 성경).

뿐만 아니라 사탄은 암논으로 하여금 다말에 대한 그의 사랑을 증오로 돌변하게 만들어 다말을 사랑할 때의 그 사랑보다 더한 증오심으로 그녀를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15절,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가장 간교한 사탄은 이성 관계에서 “간교하게 속임수로”(고후12:16, 현대인의 성경) 간음의 죄와 강간의 죄 등을 범하게 만들며 사랑을 증오로 돌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그 간교함을 아시고(참고: 눅20:23, 현대인의 성경) 간교한 사탄 예수님을 시험(유혹)했을 때 구약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마4:1-11; 약4:7).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엡6:11).

가정 사역을 실패한 성공한 목회자?

나이 많아 늙은 노인이 된 엘리 제사장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자기 아들들이 성막 입구에서 일을 돕고 있는 젊은 여자들을 유혹하여

그들과 잠자리를 같이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2:22, 현대인의 성경).

나이 많아 늙은 목사님이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그 심정은 어떠할까요?

사람들 보기에 목회(교회 사역)는 성공해서 칭찬을 받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정 사역은 ...?

가정생활은 잘못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말이 되는지요?

엘가나라는 남자가 매년 실로에 올라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린 것을 보면

그는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아 보이는데

두 아내 중 자식이 없는 한나를 특별히 사랑하여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제물의 고기를 브닌나와 그녀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고

한나에게는 두 몫을 준 것을 보면

가정생활을 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2-5, 현대인의 성경).

가정생활은 잘못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말이 되는지요?

가정에서 가장인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이복 오빠에게 강간을 당한 다말은

자기 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고 있었을 때

압살롬은 암논이 자기 동생 다말을 옥보인 일로 그를 미워하여

그와 일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사무엘하 13:20, 22, 현대인의 성경).

그로부터 2년 후에(23절, 현대인의 성경) 압살롬은 암논을 죽였습니다(29절, 현대인의 성경).

그 2년 동안 압살롬은 자기의 여동생을 옥보인 암논을 미워하여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복수의 칼을 갈았을까요?

그 와중에 아버지 다윗은 암논이 다말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기만 했습니다(21절).

성경은 아버지 다윗이 어리석은 아들 암논을 사랑으로 징계는커녕 책망을 했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또한 성경은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고 있었던 자기의 딸 다말을 찾아가 위로했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나라의 일을 하느라 무지 바빠서 가정 사역을 할 시간이 없었나 봅니다.

가정을 돌볼 책임을 다하십시오.

보아스는 룯에게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인지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녀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 한 가지 문제란 보아스 자신이 룯을 돌볼 책임이 있는 가까운 친척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룯에게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룯과 결혼하겠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만일 그가 거절하면 보아스는 자기가 대신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룯에게 "그대는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사사기 3:12-13, 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가정을 돌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도전 받습니다.

비록 그 책임을 다함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식구들 앞에서 헌신하여 묵묵히 신실하게 감당하길 기원합니다.

가족의 흥년?

나오미에게 있어서 "흥년"은 그저 고향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산 것 외에도 남편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까지 다 잃어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룻기 1:1-5, 현대인의 성경).

즉, 나오미에게 있어서 "흥년"이란 '가족의 흥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가족의 흥년은 그저 돈만 잃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식구도 잃는 것입니다.

간음한 배우자를 사랑한다는 것 ...?

간음을 하고 달아나 자기 친정 집에서 머물러 있는 그 여자를 설득하여 다시 데려오려고 한 남편(사사기 19:1-3, 현대인의 성경)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다시 가서 간음한 네 아내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건포도 빵을 즐겨도 나 여호와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네 아내를 사랑하라"(호세아 3:1,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두 남편들은 간음한 자신들의 아내를 사랑했는데 ...

간통의 죄를 덮으려다가 ...

다윗왕은 자신의 간통의 죄를 덮으려다가 결국 밋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했습니다(사무엘하11:14-17). 과연 그 정도로 다윗은 자신이 범한 간통의 죄를 덮고 싶었던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정도로 다윗은 밋세바를 원했던 것이었을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갑자기 처음으로 든 생각입니다.

갑자기 처음으로 든 생각입니다.

왜 삼손이 자기 부모와 함께 딩나로 내려가던 중 딩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젊은 사자 한 마리가 그를 보고 으르렁거리며 달려 나왔을까요?

(사사기 14:5, 현대인의 성경)

혹시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딩나로 내려가서

이방 민족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하셨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directive will)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강제 결혼?

사울 왕처럼 자녀를 강제 결혼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참고: 사무엘상 25:44, 현대인의 성경).

거역과 완고한 고집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고집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5:23).

걱려가 아니라 책망이 필요합니다!

범죄의 도구로 쓰임 받는 자에게는 걱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책망이 필요합니다

(참고: 사무엘하 11:25; 잠언 27:5, 현대인의 성경).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위대하신 이름을 생각해서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참고: 사무엘상 12:22, 현대인의 성경).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얻은 사람보다 잃은 사람들이 더 많고 더 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오미(뜻: "나의 즐거움")가 며느리 룯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 곳 여자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뜻: "쓰다")라고 불러 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괴로운 시련을 많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곳을 떠날 때는 가진 것이 많았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셨으니
어떻게 당신들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였습니다(룯기 1:19-21, 현대인의 성경).
유다 땅에 "흉년"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 모압 땅에 가서 살기로 한 결정(1-2절)의 결과가
결국 떠날 때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시고 자기에게 괴로움을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심지어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도)
이방 여인 룯이라는 며느리 한 사람을 얻었습니다.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얻은 사람보다 잃은 사람들이 더 많고 더 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룯이란 한 여인이 보아스와 재혼해서
다윗왕을 낳은 이새의 아버지 오벳을 낳습니다(4:17,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다윗왕을 통해 메시야 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16, 특히 5-6절).

계속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계속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참고: 사무엘상 8:8, 현대인의 성경)

고난을 당하는 사랑하는 식구를 볼 때에 ...

고난을 당하는 사랑하는 식구를 볼 때에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큰 소리를 울었던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참고: 사무엘상 30:1-4, 현대인의 성경)

과부 며느리가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원하는 시어머니?

자신의 아들과 사별과 며느리 룯이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길 원했던 과부 시어머니 나오미는 룯의 재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룯과 구체적으로 대화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모습을 룯기 3장에서 엿봅니다. 그리고 룯은 자신의 재혼을 추진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대화하면서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룯기 3장). 과연 몇 명의 시어머니가 죽은 자기 아들의 부인인 며느리가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위하여 그 며느리의 재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여할까요?

과연 우리는 우리 자녀의 악행을 어떻게 제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서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행하는 악에 대해서
그 가족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엘리 제사장에게 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받을 짓을 계속하는 것을 보고도 그것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3:13, 현대인의 성경).
만일 우리의 자녀가 엘리의 아들들처럼 저주받을 짓을 계속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 자녀의 악행을 어떻게 제지할 수 있을까요?

광야의 축복

하나님께서서는 다윗을 왕궁에서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사무엘하15:23, 현대인의 성경).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가서
부드러운 말로 우리를 잘 타이르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호세아 2:14, 현대인의 성경).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왕궁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기보다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교회 지도자에게는 ...

교회 지도자에게는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함이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동시에 그를 무시(멸시)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무엘상 10:26-27, 현대인의 성경).

귀한 친구의 사랑입니다!

비록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고(사무엘상 18:9) 두려워하여(12절)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10, 17-21절)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며 무척 사랑하며(1, 3절, 현대인의 성경)

심히 좋아하고 있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19:1)은 다윗을 살리려고 그를 도와줬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너는 조심하고 내일 아침 들에 가서 숨어 있거라"고 귀땀해주었을 뿐만 아니라(2절, 현대인의 성경)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이렇게 칭찬까지 했습니다:

"아버지, 신하 다윗을 해하지 마십시오. 그가 아버지를 해칠 만한 일은 조금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에 아버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가서 골리앗을 죽인 것과

그리고 그 결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주셨던 일을 잊으셨습니까?

아버지는 그때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쩌서 아버지는 이제 와서 것처럼 죄 없는 사람을 죽여 범죄하려고 하십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4-5절,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1) 요나단은 아버지의 명령(1절)을 어겼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되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는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에베소서 6:1),

(2) 요나단은 심히 사랑하는 다윗을 위기 때 도와줬습니다.

진정한 사랑하는 친구는 위기 때 그 우정(friendship)이 빛을 발합니다,

(3) 요나단은 살인적인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했다는 그 자체가 놀랍습니다.

웬만한 사랑과 용기가 아니면 그리 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진정한 사랑하는 친구는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친구를 위기에서 건지고자 도와줍니다. 귀한 친구의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에는 갈등과 분쟁과 배반과 분열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를 옳지 않게 함부로 세우는 것은 결코 참된 일이 아니고
모든 교인들에게 그리 행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 아닙니다.
그 결과로 교회에는 갈등과 분쟁과 배반과 분열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 사사기 9:16, 23, 현대인의 성경).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인 목사를 자기 돈으로 사서 자기 목사로 주님의 교회에 세워놓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하는 장로가 있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고: 사사기 17:10-13, 현대인의 성경)

그 불순종의 결과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의 결과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참고: 사무엘상 12:15, 현대인의 성경).

그 살인자와 재혼을 할 수 있을까요?

과부 밧세바는 다윗왕이 자기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줄 전혀 모르고

다윗의 아내가 되었을 것입니다(사무엘하11:27).

내 배우자를 의도적으로 죽인 사람인 줄 알고서도 그 살인자와 재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소식의 대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자기가 보기에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우리에게 전해준 그 소식의 대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무엘하 4:10, 현대인의 성경).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여 다윗 앞에서 그의 모든 대적을 파멸시키며

앞으로 다윗이 이름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의 이름처럼 높여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9, 현대인의 성경).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에게 승리를 주셨고(8:6, 14, 현대인의 성경)

그의 이름을 더욱 유명하게 하셨습니다(13절, 현대인의 성경).

민수기 23장 19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인간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어찌 그가 말씀하시고 행하지 않으시며 약속하시고 지키지 않으시겠소?”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과 달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는 그 힘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참고: 사사기 16:5-6; 시편 18:1,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그에게 던졌던 사울은(사무엘상 18:11, 19:10)

자기 아들인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그에게 단창을 던졌습니다(20:33).

그러나 다윗뿐만 아니라 요나단도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치사사 죽이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

사울 왕은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 없는 다윗을 죽여 범죄하려고 했습니다(사무엘상 19:5,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지게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21, 현대인의 성경).

그만큼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이세상과 가까워져 있다는 증거?

압살롬은 암논만 죽였는데

다윗은 압살롬이 모든 왕자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소문을 듣고

벌떡 일어서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렸습니다(사무엘하 13:28-31, 현대인의 성경).

만일 우리의 귀가 사실(Fact)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세상의 거짓된 소문이나 우리의 귀를 즐겁게하는 사람들의 말을 더 잘 듣고 있다면

(디모데후서4:3, 현대인의 성경),

그만큼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이세상과 가까워져 있다는 증거라 생각합니다.

그저 겸손히 믿음으로 순종하다 보면 ...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사

이새의 아들들 중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셨을 때

구체적으로 그 한 명이 누구인지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내가 그(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 부을 자를 너에게 알려 주겠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16:1, 3, 현대인의 성경).

그러신 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보고 있었을 때

이새의 8명의 아들들 중 제일 막내 아들인 다윗을 보고 있는 사무엘에게

“이 소년이 내가 말하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6-12절, 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미리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나중에 가서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의문을 가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겸손히 믿음으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사무엘상 14:37-38, 현대인의 성경).

기도를 드릴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제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드릴 마음이 생겼습니다
(참고: 사무엘하 7:27, 현대인의 성경; 마태복음 16:18).

기도하는 여자, 나쁜 여자?

기도하는 여자는 나쁜 여자로 느끼게 만드는 목사님이라면 ...?
(참고: 사무엘상 1:13-16, 현대인의 성경)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부모님 세대와
우리 세대를 위해 행하신 모든 선한 일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 사무엘상 12:7, 현대인의 성경).

기회를 따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기회를 따라 행해야 합니다(참고: 사무엘상 10:7).

나귀 턱뼈와 같은 나같은 사람도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듯이(사사기 15:15-16, 현대인의 성경),
주님께서 나귀 턱뼈와 같은 나같은 사람도 사용하시사
1,000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나는 죽어도 ...

나는 죽어도 내 자녀를 주님의 종을 세우시사
예수님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하옵소서
(참고: 사무엘하 7:12, 현대인의 성경; 마가복음 8:35).

"나쁜 여자"?

목사님이 나를 나쁜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
(참고: 사무엘상 1:16, 현대인의 성경)

남편도 아내의 심정을 이해못한다고 생각될 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고 부르짖으려고 성전으로 갔었을 때
남편 엘가나는 그녀와 함께 있지 않았습시다(사무엘상 1:9-10, 현대인의 성경).
남편도 아내의 심정을 이해못한다고 생각될 때
그녀는 홀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눈물로 간구하며 마음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내 성전을 지을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궁전에 정착하여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했습니다(사무엘하7:1-5,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너는 내 성전을 지을 자가 아니다”(5절, 현대인의 성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하나를 왕으로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며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건축할 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12-13절, 현대인의 성경).
만일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지 않으시고 내 아들을 통해 이루실 것이라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길 기원합니다(마태복음 26:39, 현대인의 성경).

"너는 네 아내에게 성실하고 그녀만 사랑하여라."

"어느 날" 삼손은 딘나로 내려가 거기서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고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그 처녀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사사기 14:1-2, 현대인의 성경).
또 "어느 날" 삼손은 가사로 가서 그 곳의 어떤 창녀를 보고
그녀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16:1, 현대인의 성경).
"이런 일이 있는 후에" 삼손은 소이 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4절, 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들을 묵상할 때 삼손은 사사로서 여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취약점 중에 하나가 충분히 여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5장 15-21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너는 네 아내에게 성실하고 그녀만 사랑하여라.
네가 다른 여인에게 정을 주어 자식을 낳게 할 이유가 무엇이나?
너는 네 자녀들의 행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얻은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그녀와 함께 즐거워하라.
너는 암사슴처럼 그녀를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여겨 그 품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며
그녀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네가 무엇 때문에 음란한 여자에게 정을 주어야 하며 남의 아내 가슴을 안아야 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하는 일을 다 지켜보시므로 네가 무엇을 하든지 다 알고 계신다."

너무 늙어 재혼할 수도 없는 시어머니?

너무 늙어 재혼할 수도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비록 자기 자신은 남편 없이 살 수 있어도
자기의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룯은 재혼하여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원했습니다
(룯기 1:9, 12, 현대인의 성경).
며느리의 행복을 위하는 시어머니가 되어 합니다.

너무 잘난 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너무 잘난 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만한 자들은 너무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2:3, 현대인의 성경).

너무나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라 할지라도 ...

너무나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털어놓아서는 아니 됩니다
(참고: 사사기 16:17, 현대인의 성경).

높임 받는 것에 중독된 사람은 자기 보다 더 높임을 받는 사람을 충분히 살인적인 질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모든 군중 앞에서 높임을 받기를 원했던 사울 왕은

(사무엘상 15:30, 현대인의 성경)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인 다음 승리한 이스라엘 군이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모든 성에서 여자들이 승전을 축하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라네"라고 노래했을 때

얼마나 불쾌하였길래 그는 그 때부터 다윗을 계속해서 살인적인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겠습니까?

(18:6-9,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높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높임을 받으면 충분히 질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높임 받기를 좋아하기 보다 하나님에게 높임 받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낮춰서

다른 사람을 우리보다 낮게 여기고

우리의 모든 특권을 버리며 종의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0:28; 빌립보서 2:3-8, 현대인의 성경).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참고: 빌립보서 2:9-11).

누구의 보호를 ...?

고향에 사는 부모님의 보호보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참고: 룻기 2:11-12, 현대인의 성경).

다들 도움주기를 거절할 때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보지만 다들 도움주기를 거절할 때
바로 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십니다
(참고: 사사기 12:2-3, 현대인의 성경).

다윗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 아니라 사울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아들 요나단에게 노발대발하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 놈아! 네가 네 자신의 수치와 네 어미의 수치도 모르고
천한 이새의 아들 쪽을 택한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그 녀석이 살아 있는 한 너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당장 가서 그를 끌어오너라.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사무엘상 20:30-31, 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을 묵상할 때

(1) 사울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야고보서 1:20, 현대인의 성경).

오히려 사울의 분노는 잔인하고 파괴적이었습니다(잠언 27:4,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요나단을 향한 사울의 분노는 다윗을 향한 질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4절, 현대인의 성경; 참고: 사무엘상 18:9, 현대인의 성경),

(2) 미친 사람은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아버지 사울이었습니다,

(3) 수치를 알아야 할 사람은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아버지 사울이었습니다,

(4)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보다 친구 다윗을 선택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5)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사무엘상 15:23)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는데(16:12)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길 원했습니다,

(6) 다윗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 아니라 사울의 뜻이었습니다,

(7) 결국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죽습니다(31:5).

담이 되어주는 사람을 모욕해서는 아니됩니다.

대단히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거칠고 야비하며 고집에 세고
성격이 좋지 않은 나발(사무엘상 25:2, 현대인의 성경)은
자기의 목동들에게 정말 잘해주고 밤낮으로 그들의 담(wall)이 되어주었던
다윗의 부하들을 모욕했습니다(14-15절, 현대인의 성경).
가정에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담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아버지를 자녀들은 모욕(scorn)해서는 아니되겠지요.

대신할 다른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엘가나와 한나를 축복하시사
하나님께 바친 사무엘을 대신할 다른 자녀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20-21,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서는 저와 제 아내를 축복하셔서
죽은 주영이를 대신할 자녀 세명(달런, 예리, 예은)을 주셨습니다.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나를 오해하고 있는 목사님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참고: 사무엘상 1:12-18, 현대인의 성경).

돌변하는 우리의 사랑 vs. 변찮는 주님의 사랑

다말을 향한 암논의 사랑은 돌변하여

암논은 다말을 사랑할 때의 그 사랑보다 더한 증오심으로 그녀는 미워했듯이

(사무엘하13:15, 현대인의 성경)

우리의 이웃 사랑도 수시도 돌변하여 미워할 때가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새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1절 가사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돌아오는 것?

나오미에게 있어서 "풍년"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고향 땅을 축복하셨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모압 땅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룻기 1:6-7, 현대인의 성경).

즉, 나오미에게 있어서 "풍년"이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풍년의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1)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을

마음으로 미워하는 살인 죄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참고: 사무엘하1:14, 16; 요한일서 3:15).

두려워해야 합니다. (2)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참고: 사무엘하 10:12, 19, 현대인의 성경).

룻에게서 배우는 교훈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나라이지만 이방 여인인 며느리 룻에게는

낯선 나라인 유다 땅에 와서 그녀는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이삭을 주으러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친절한 사람이라도 만나서 은혜를 입으면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룻은 밭으로 나가 보리 베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었는데

"우연히" 죽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집안에 속한 유력한 사람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룻기 2:1-3,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며느리 룻은 항상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대화를 하고 행동으로 옮긴 것 같습니다.

(2) 룻은 자신이 객지에 와서 일하러 나아간 이유는 늙은 나오미를 봉양하고자 그리했던 것 같습니다 (4:15).

(3) 성경은 룻이 일하러 간 곳이 "우연히" 그녀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보기엔 우연히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속에서 섭리하셔서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4) 룻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입고자 일하러 나갔는데 결국에는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습니다(2:10).

이 4가지 묵상을 통해 배우는 교훈은

(1) 우리는 자주 부모님과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우리는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을 잘 봉양해야 합니다.

(3)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4)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룻은 며느리로서 모범이 됩니다.

남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사랑하여
자기 부모가 있는 고향을 마다하고 낯선 유다 땅에까지 와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나오미를 잘 봉양을 한 룻은 며느리로서 모범이 됩니다
(룻기 2:11, 현대인의 성경; 4:15).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있는데 목사님이란 분이 ...

술을 마시지도 못하는 여성도님이 예배당에 올라와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있는데
목사님이란 분이 그 여성도님이 술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녀에게 "언제까지 술주정만 하고 있을 작정이요?
당장 술을 끊으시오!"라고 꾸짖는다면 ...?
(참고: 사무엘상 1:13-15, 현대인의 성경)

막돼먹은 남편, 지혜로운 아내?

가정 안에서 말을 붙여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막돼먹은 나팔과 같은 남편으로 인해 위기가 왔을 때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아내는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빨리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참고: 사무엘상 25:17, 현대인의 성경).

만일 우리가 다윗처럼 결백하면 ...

다윗은 사울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24:11, 현대인의 성경).

그는 결백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자기와 사울 왕 사이를 판단(심판)하사
자기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자기를 사울 왕의 손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사울 왕에게 보복하실 것이기에
자기가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해하지 않았습니다(12, 15절).

만일 우리가 결백하면

우리는 다윗처럼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우리와 우리를 해하려는 사람 사이에 잘못된 자를 가려내시고
우리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그 해하려는 사람에게서 구해 주시길 기원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는다면 ...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범죄하므로 하나님의 목적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는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돌아가게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참고: 사무엘하 15:25; 요나 2:4; 3:1-4, 현대인의 성경).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고집을 피우면 ...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고집을 피우면

그 결과로 우리는 인생의 쓴 맛을 볼 것입니다

(참고: 사무엘상 8:11-19; 룻기 1:20, 현대인의 성경).

만일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충동하여 우리를 대적하게 하신 것이라면 ...

만일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충동하여 우리를 대적하게 하신 것이라면

분명히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6:19, 현대인의 성경; 로마서 12:2).

그러나 만일 상대방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인간들의 책략에 불과한 것이라면

(사무엘상26:19,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대방 사이를 판단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에게 보복하실 것입니다(24:12).

말과 마음의 동기가 다른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 왕에게 사울의 집안의 아브넬 장군이 헤브론까지 온 것은

다윗 왕을 속이고 다윗 왕의 모든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라고 말은 했지만

다윗은 실제로 요압은 아브넬이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의 동생인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3:25, 30, 현대인의 성경).

지도자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 중에 요압처럼 말과 마음의 동기가 다른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사울 왕은 "오늘 내가 원수에게 복수하기 전에
무엇이든지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엄숙하게 선언했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주린 채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자기가 들고 있던 막대기를 내밀어 꿀을 찍어 먹으므로 즉시 원기를 회복했습니다.
그 때 한 사람이 요나단에게
"당신의 부친께서 오늘 무엇이든지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엄하게 경고하셨으므로
모두 먹지 못하고 굶주린 채 지쳐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요나단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명령은 우리를 해칠 뿐이야. 내가 이 꿀을 조금 먹고 얼마나 기운을 차리게 되었는지 한번 보아라.
만일 백성들이 적에게서 뺏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만 있었다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적을 더 죽일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상 14:24-30, 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의 명령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한 이유는
그 명령은 자기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칠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 왕의 명령에 순종하므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굶주린 채 지쳐 있었다는 것은 진정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진정 말이 되는 소리인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구분하여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아내는
막돼먹은 나발과 같은 남편으로 인해 닳친 가정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선
자기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참고: 사무엘상 25:19).

며느리의 상처로 인해 마음이 더욱 아파하는 시어머니가 돼야 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룯에게 상처를 주어 자기를 벌하셔서 자기 마음이 더욱 아프다고 그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룯기 1:13, 현대인의 성경).
자신의 며느리의 상처로 인해 마음이 더욱 아파하는 시어머니가 돼야 합니다.

며느리의 행복을 위하여

나오미는 자기 고향인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두 며느리인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룯에게 친절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오미는 그 두 며느리가 자신들의 남편과 자기를 정성껏 섬겼기에 이젠 자기 친절으로 돌아가서 재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원했기 때문입니다(룯기 1:7-9, 현대인의 성경).
흘로된 시어머니는 주님께 돌아감에 있어서 며느리의 행복을 위하여 며느리를 축복하고 떠나보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기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어리석은 암논은 몹시 다말을 사랑하여 그녀를 욕보인 것보다 그녀를 증오심으로 미워하여 쫓아 보내는 것이 더 큰 죄인 줄 몰랐습니다(사무엘하 13:15-16, 현대인의 성경).
어리석은 자의 무지함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전도서 10:3, 현대인의 성경).
그러면서도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수치를 알지 못합니다(참고: 스바냐 3:5, 현대인의 성경).

모든 일이 순조롭기 위해서는 ...

모든 일이 순조롭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또한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거역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참고: 사무엘상 12:14, 현대인의 성경).

한 마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는 비결입니다.

목사님과 성도님에게 주시는 교훈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하나도 숨김 없이 모든 것을 다 말하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사무엘은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했었지만 하나도 숨기지 않고 엘리 제사장에게 모든 것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은 "그것은 여호와 의 뜻이므로 그분이 좋은 대로 하실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3:15-18, 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을 묵상할 때

(1)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그대로 성도님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교훈과

(2) 그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므로

하나님께서 좋으실 대로 하실 것입니다'라는 것(18절, 현대인의 성경)과

"여호와 의 말씀이 좋은 것이든 아니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2:6, 현대인의 성경)라는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목사님들은 탐심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탐심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 자녀들을 더 소중이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참고: 사무엘상 2:29, 현대인의 성경).

목회자는 ...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하나님의 양 떼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중단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고 계속 선하고 옳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참고: 사무엘상 12:23, 현대인의 성경).

몰래 불순한 의도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람?

우리 몰래 뒤에서 불순한 의도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세력을 점점 더 커지게 하여 그를 따르는 자들이 점진적으로 계속 불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 사람의 음모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고

그의 음모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참고: 사무엘하 15:10-12; 시편 21:11; 64:2, 현대인의 성경).

못 말리는 며느리?

나오미의 두 며느리 중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친정과 자기 백성(모압)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룯은 계속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살길 원했습니다.
룯은 시어머니의 백성이 자기기의 백성이 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룯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묻힐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에 만일 제가 어머니 곁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시기 원합니다."
나오미는 룯이 자기와 함께 가겠다고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룯기 1:14-18, 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룯이란 며느리의 시어머니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 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아가 8:6, 현대인의 성경).
한 마디로, 룯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사랑하는 못 말리는 며느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시어머니라 생각합니다.

무익한 거짓 신들을 좇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와줄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는 무익한 거짓 신들을 좇아서는 안 됩니다
(참고: 사무엘상 12:21, 현대인의 성경).

무익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보다 유익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일라 사람들만 사울 왕을 도운 것이 아니라(사무엘상23:12)

십 사람들도 다윗을 찾아 죽이려는 사울 왕을 도왔습니다.

십 사람들은 사울 왕에게 가서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알려주면서

만일 사울 왕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방으로 내려오면

다윗을 잡아 사울 왕에게 넘겨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19-20절,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사울 왕은 다윗을 찾고자 함에 있어서

이런 저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매일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서는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찾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까(14절, 현대인의 성경).

비록 사울 왕은 “그 땅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그(다윗)를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고 했지만(23절,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서는 반드시 다윗을 도우시사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찾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보다 유익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시편 121편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이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 오는구나.

그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니 너를 지키는 분이 졸지 않으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며 네 오른쪽에서 너를 보호하시니

낮의 해가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네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시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그가 너를 지키실 것이니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라.”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합니다.

어리석은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자기가 범죄하였다고 고백한 후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구했으니 내가 다시는 너를 해치려고 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는 어리석게도 또 다시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사무엘상 26:21, 현대인의 성경).

잠언 26장 11절 말씀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악을 행하는 것으로 낙을 삼지만 ...

큰 잔치를 벌여 놓고 술을 잔뜩 먹고 취해 있었던 나발에게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난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다가

나발이 다음날 아침에 술에서 깨어났을 때 다윗을 만난 일에 대해 말하자

나발은 갑자기 심장 마비를 일으켜 몸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는 약 10일 동안 전신이 마비된 채 누워 있다가

하나님께서 치시므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25:36-37, 현대인의 성경).

분명히 다윗을 만난 일이 매우 심각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술 취한 남편 나발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다가

그 다음 날 아침에 그가 술에서 깨어났을 때에서야 그 일을 말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악을 행하는 것으로 낙을 삼지만 총명한 사람은 지혜로 낙을 삼는다”

(잠언10:23, 현대인의 성경), “미련한 자에게 말하지 말아라.

그는 너의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이다”(23:9, 현대인의 성경),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13:20, 현대인의 성경).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흥미롭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므로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베나민 지파의 성읍인 놈을 떠나

블레셋 지경에 있는 가드 왕 아기스로 갔다가(사무엘상21:1, 10, 현대인의 성경)

가드를 떠나 아둘람 골로 도망갔다가(22:1)

거기서 떠나 모압의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알 때까지

자기 부모가 왕궁의 보호를 받도록 해 달라고 간청”을 해서 허락을 받아

요새에 피신해 있었는데 (3-4절, 현대인의 성경)

어느 날 선지자 갓을 통하여 다윗에게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5절).

이 사실이 왜 흥미롭냐면

다윗이 선지가 갓의 말 대로 유다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

마치 ‘나 여기있소 나를 잡아 죽이시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유대 경내에 있는 중요한 성읍(수15:44)(다국어 성경)]를 쳐서

새로 추수한 곡식을 약탈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다윗이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하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서는 “좋다. 가서 그일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삼상23:1-2, 현대인의 성경).

그러자 다윗의 부하들은 “우리가 여기 유대에 있기도 두려운데

그일라까지 가서 어떻게 전 블레셋 군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자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일라로 내려가거라.

내가 블레셋 군을 네 손에 넘겨 주겠다”하고 대답하셨습니다(3-4절,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다윗의 입장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다윗이 자기의 지식(명철)을 의지했다면(잠언 3:5,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일라로 내려가는 것은

분명히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 잡힐 확률이 많았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일라로 내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 왕은 다윗이 그일라에 갔다는 말을 듣고 “잘 됐다! 이제는 그 놈을 잡았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아귀에 넣어주셨구나!
제 놈이 튼튼한 문과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성 안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갔으니
꼼짝없이 갇혔구나!”하고 외쳤습니다(사무엘상 23:7,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사울 왕은 전 병력을 동원하여 그일라로 가서
다윗과 그 부하들을 포위하려고” 했습니다(8절, 현대인의 성경).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므로(잠언 3:5)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군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축했습니다
(사무엘상 23:5, 현대인의 성경).

여기서 얻는 교훈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지 않고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주위에 사울과 같은 사람은 믿음이 없이 자기의 지식으로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헛된 생각(사울 왕은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 손아귀에 넣어 주셨다고 생각했음)
과 잘못된 확신(사울 왕은 다윗이 그일라에 꼼짝없이 갇혔다고 확신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두려워했던 다윗의 부하들이 자기들의 지도자인 다윗을 따라 그일라고 가서 블레셋 군을 친 것을 보면
그들 또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는 다윗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랐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고,
지도자를 따르는 자들은 믿음의 지도자를 믿음으로 따라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변질되기보다 변화 받아야 합니다.

스스로 보잘것 없는 존재로 여기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범죄한 후에는
"적어도 내 백성의 지도자들과 모든 이스라엘 군중 앞에서 만이라도 나를 높여 주시요"라고
사무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사무엘상 15:17, 30, 현대인의 성경).

한 마디로, 사울은 변질되었습니다. 겸손하던 자가 교만해진 것입니다.
교만하던 자가 계속해서 겸손해져야지, 겸손하던 자가 계속해서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보이는 데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기를 기원합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의 지시대로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리다가
자기에게 남아 있던 사람들이 다가올 위험을 생각하며 무서워서 떨고 있다가
그들마저 하나씩 둘씩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오게 하여 그것을 직접 불로 태워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막 제사를 다 드렸을 때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사무엘상 13:7-10, 현대인의 성경).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한 변명입니다:
"내 부하들은 내 곁을 떠나고 당신은 오기로 약속한 날에 오지 않고
게다가 블레셋 군은 므마스에서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오는데 나는 아직도 여호와와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소.
그래서 내가 당신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하는 수없이 번제를 드리고 말았소"
(11-12절, 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보이는 것을 살면
기다리지 못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참고: 고린도후서 5:7, 현대인의 성경).
만일 사울 왕이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는 사무엘의 지시대로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보이는 것으로 행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적군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 진을 쳤는데
전차가 30,000대와 마병이 6,000명을 가진 그들의 병력은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았고(5절,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적의 어마어마한 병력을 보고
사태가 다급해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빈 무덤과 웅덩이를 찾아 숨었고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차기도 하였으니
이렇게 무서워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둘씩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6-8절,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사울 왕은 사무엘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즉, 사울 왕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13절, 현대인의 성경).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사울 왕처럼 보이는 것으로 행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많지 않아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보이는 데로 행하자마다 일이 해결되는 모습을 오늘 이 아침에도 경험했습니다.

보잘것 없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사울이 자기 자신을 보잘것 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을 때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5:17, 현대인의 성경; 참고: 9:21,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서는 "내 가족 중에서 가장 보잘것 없는 자"라고 말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사사기 6:15, 현대인의 성경).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이요(고린도전서 15:9,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 없는 나"라고 말한 바울(사울)(에베소서 3:8, 현대인의 성경; 참고: 고린도후서 12:11, 현대인의 성경)을 이방인의 사도(로마서 11:13; 갈라디아서 2:8)로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 없는 사람들(사도행전 4:13, 현대인의 성경)을 택하셔서(고린도전서 1:28, 현대인의 성경)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보잘것 없는 사람이 보잘것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되면 ...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며 게다가 우리 가족은 우리 지파의 모든 집안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 없는 집안인데 어째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했는데 (사무엘상 9:21, 현대인의 성경)
흥미로운 점은 다윗도 사울 왕에게 “내 아버지(이새)의 집안은 보잘것 없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18:18,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서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나 자기 스스로 보기에 보잘것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택하여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 생각납니다(고린도전서 1:28,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만일 우리가 스스로 보잘것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교만해져서 보잘것 있는 사람이라고 내세우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도구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분리의 산"과 "들 염소 바위"

“분리의 산”(“셀라하마느곳”)이라고 불린 곳에서

다윗을 잡으려고 포위망을 좁히고 있었던 사울 왕과 그의 군대로 다윗을 건져 내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3:26-28, 현대인의 성경)

“들 염소 바위”가 있는 곳에서

사울 왕을 다윗에게 넘겨주셨지만(24:4, 9, 18)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살며시 잘랐고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부터 세우신 왕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임을 알고 있었고(6, 9절, 현대인의 성경)

또한 그를 아꼈기 때문이었습니다(9절, 현대인의 성경).

자기를 해치려는 원수조차도 아끼는 다윗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 된 우리(로마서 5:10)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생각났습니다(요한복음 3:16).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44, 현대인의 성경).

불만, 불평, 선동, 배반, 대적, 제거

옳지 않게 세운 교회 지도자에 대하여 불만이 쌓이다 보면

불평하는 교인들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 그 교인들을 선동하여

그 교회 지도자를 배반하고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적의 목적은 그 교회 지도자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사기 9:29, 31, 현대인의 성경).

불순종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낫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 왕에게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이 그들을 길에서 대적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벌하기로 작정하였다.

이제 너는 가서 아말렉을 치고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와 기타 가축은 물론,
남자 여자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젓먹이까지 모조리 죽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상15:2-3,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10절).

그런데 사울 왕의 목자장인 에돔 사람 도역(21:7, 현대인의 성경)은
사울 왕이 “여호와와 제사장들”(22:17, 현대인의 성경)인 아히멜렉과
그의 친척을 “죽여라”하고 명령하니까 “

에봇을 입은 85명의 제사자들을 모조리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18절, 현대인의 성경).

“그런 다음에 그는 또 왕의 명령을 받아 그 제사장들의 성인 놉으로 가서
남자 여자 어린 아이 가리지 않고 젓먹이들까지 제사장의 가족을 모조리 죽이고
또 소와 나귀와 양도 모두 죽였”습니다(19절, 현대인의 성경).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올바른 명령에 불순종한 반면에

도역은 사울 왕의 잘못된(뺄어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낫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느냐입니다.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허락하시사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사사기 14:1-4, 현대인의 성경).

여기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두 가지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directive will)과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permissive will)입니다.

예를 들어 삼손은 하나님께 받쳐진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삼손을 향하신 하나님이 직접적인 뜻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어기고 삼손이 구별되지 않는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말은 삼손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을 어기고

자기의 부모님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그렇게 결혼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블레셋 사람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을 심판하시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삼손이 원하는 대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비록 내 남편은 내 고통을 못 본다 할지라도 ...

비록 내 남편은 내 고통을 못 본다 할지라도

전지하신 하나님은 아내의 고통을 보시고 기억하시

그녀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서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참고: 사무엘상 1:11, 현대인의 성경).

비록 미련한 나발은 다윗의 선을 그에게 악으로 갚았지만 ...

비록 미련한 나발은 다윗의 선을 그에게 악으로 갚았지만

(사무엘상 25:21,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서는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다윗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잠언 19:14, 현대인의 성경).

비록 사람은 거짓말을 하거나 마음이 변하는 일이 있지만 ...

비록 사람은 거짓말을 하거나 마음이 변하는 일이 있지만

우리의 영광이 되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거나 마음이 변하는 일이 없습니다

(참고: 사무엘상 15:29, 현대인의 성경).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기에

다윗은 자기를 마음 속으로 업신여기고 입으로 빈정거리는 자기 아내 미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계속 춤을 출 것ियो.

내가 이보다 더 바보 취급을 받아도 좋소”(사무엘하 6:16, 20, 21-22, 현대인의 성경).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앞으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계속하던 하던 대로 행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있는 사람

우리 몰래 뒤에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있는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 그 사람은 자기 그룹을 형성하여 우리를 대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5:6, 현대인의 성경).

사람의 꾀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울 왕은 꾀를 부려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서는 다윗과 함께하셔서
그로 하여금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게 하시므로
다윗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8:17-25, 28, 30).
사람의 꾀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부부는 ...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남편과 아내는
생전에도 함께 있다가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않습니다
(참고: 사무엘하 1:23, 현대인의 성경).

사랑하는 자녀를 살려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의 심정

심한 병에 걸린 사랑하는 자녀를 살려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의 심정은
어느 누구의 위로도 거절할 정도일 것입니다
(참고: 사무엘하 12:15-17; 시편 77:2, 현대인의 성경).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기원합니다.

요나단은 언약으로 맺는 자신의 형제인 다윗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그는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이 말한대로
만일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일 계획(음모)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다윗에게 알려줘서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가게 하려고 했습니다.
한 마디로, 요나단은 자기가 사랑하는 다윗을 자기 아버지인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고 싶었습니다
(사무엘상 20:8-12, 현대인의 성경).
사랑하는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친구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기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처럼 나 또한 늙어 백발이 되어도 ...

사무엘처럼 나 또한 늙어 백발이 되어도

내 주위에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를 속이거나 못 살게 군 일이 없으며

단 한 번도 뇌물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기를 기원합니다

(참고: 사무엘상 12:4, 현대인의 성경).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굴지 않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단 한 번도 뇌물을 받지 않는 정직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며 칠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그가 다윗과 공모하여 자기를 대적한다고 말했고

또한 그가 다윗을 선동하여 다윗이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를 칠 기회만 노리도록 했다고 말했는데

(사무엘상22:13, 현대인의 성경)

실제로는 사울 왕이 다윗을 대적했고 또한 그를 칠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또한 우리를 칠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약해지길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약해지길 원합니다.

그 이유는 사탄은 우리를 여러 죄악의 줄로 묶어서 우리를 복종시키길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사사기 16:5, 7, 11, 현대인의 성경).

사탄은 우리가 다시 죄에게 종 노릇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로마서 6:6).

상대방이 우리를 해치려고 할지라도 ...

비록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 해맸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사울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24:11, 현대인의 성경).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내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들을 묵상할 때 상대방이 우리를 해치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똑같이 상대방을 해치려고 하므로 하나님께 범죄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로마서 12:2)을 이루실지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 사람, 새 마음, 새 영, 순종하는 마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17, 공동번역).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새 사람에게 새 마음(사무엘상 10:9, 현대인의 성경)과

새 영과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니다(에스겔 36:26, 현대인의 성경).

생각의 좋은 대로 행하는 콩가루 집안이 아닌가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어머니가
도독질한 자기 자식을 사랑으로 책망하기는커녕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한 후
빼놓어진 자식 사랑으로 그 자식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 줘서
결국 그 자식은 가정 신들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자기 아들 중 하나를 목사로 만들었다면
이것이야 말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어머니는 어머니 생각의 좋은 대로,
자식은 자식의 생각의 좋은 대로 행하는 콩가루 집안이 아닌가요?
(참고: 사사기 17:1-6, 현대인의 성경)

서원한 것을 갚아야 합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는 서원기도로 얻은 아들 사무엘을
서원한대로 평생 하나님께 받쳤습니다
(사무엘상 1:11, 20, 27, 현대인의 성경).
전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선동하여 공격할 기회만 노리는 사탄

사울 왕은 자기 신하들에게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선동하여 자기를 ‘죽일 기회만 노리고 있다’고 말했는데
(사무엘상 22:8, 현대인의 성경)
실제로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일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질투하는 사람을 선동하여 어떻게 해서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공격할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설득력과 충실한 자

분명히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 왕이
자기들이 숨어 있는 동굴의 깊숙한 곳까지 용변을 보려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원수인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생각하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하고 다윗에게 속삭였습니다
(사무엘상 24:3-4,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살며시 베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의 부하들에게 사울을 해하지 말라고 설득했습니다(4-7절, 현대인의 성경).
저는 다윗의 말에 설득을 당하여
“사울을 차마 죽일 수가 없었”던 다윗의 부하들(7절, 현대인의 성경)을 생각할 때
마치 다윗이 사울 왕에게 “충실한 자”(22:14)였던 것처럼
다윗의 부하들도 다윗에게 충실한 자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한 것을 볼 때
잠언 16장 23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과 욥기 6장 25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이 마음에 다가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언제나 신중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잠언16:23),
“진실한 말은 설득력이 있는 법이다. …”(욥기6:25).

섬세하게 우리를 인도하시사 주님 안에서 귀한 만남을 주시는 하나님

룻이 "우연히"

자기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막 도착하였고

또한 그는 일꾼들 중에 룻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람에게

"저 젊은 여자가 누구냐?"하고 룻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룻기 2:3-5,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룻과 보아스를 인도하시사 서로 만나게 하시되

하나님의 때(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게 하셨고

또한 많고 많은 일꾼들 중에 보아스로 하여금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서 온"(6절, 현대인의 성경)

한 "이방 여자"(10절, 현대인의 성경) 룻에게 관심을 갖고 주목케 하시사

대화하게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신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섬세하게 우리를 인도하시사 주님 안에서 귀한 만남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3:5).

다윗은 심히 아름다운 여자가 목욕하는 광경을 보고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유부녀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여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사무엘하 11:2-4, 현대인의 성경).

모세의 십계명을 보면 열 번째 계명에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출애굽기 20:17).

그런데 다윗은 이 계명을 어기고 이웃의 아내를 탐했습니다.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골로새서3:5).

우리는 다윗처럼 눈의 욕심에 이끌리고(요한일서 2:16, 현대인의 성경)

우리의 눈이 음란으로 가득 차서(베드로후서2:14, 현대인의 성경)

남편이 있는 유부녀와 동침하는 죄를 범해서는 아니 됩니다(사무엘하11:4).

성도님의 심정은 어떨겠습니까?

목사님에게 오해를 받고 꾸짖음을 받는 성도님의 심정은 어떨겠습니까?

(참고: 사무엘상 1:12-14, 현대인의 성경)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강한 힘을 주시사 ...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강한 힘을 주시사

우리 마음과 삶을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므로 자유케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참고: 사사기 15:14, 현대인의 성경).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아무 허물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너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요?
(참고: 사무엘상 29:3, 6, 현대인의 성경)

속히 간통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기원합니다.

다윗왕은 유부녀 밧세바가 자기 아기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사실을 덮으려고 전쟁터에서 지휘관인 요압 장군과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싸우고 있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자기에게로 오게 해서 그로 하여금 집에 가서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던 그의 아내 밧세바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왕의 의도와 계획대로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그날 밤을 궁전 경비병들과 함께 궁전 문 앞에서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아는 “우리 군대가 지금 전쟁 중이며 여호와와 함께 있는 나의 지휘관인 요압 장군과 그 부하들이 빈 들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같이 잘 수 있겠습니까?”라고 다윗왕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아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윗 왕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왕은 우리아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여 먹고 마시며 그를 취하게 한 후 그를 그의 집으로 가게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그 날 밤도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고 궁전 정문의 경비실에서 경비병들과 함께 잤습니다
(사무엘하 11:5-13, 현대인의 성경).
충성된 군인 우리아는 자기 아내인 밧세바와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은 반면에
다윗은 자기의 왕권을 남용하여 자기 이웃의 아내인 밧세바와 그리도 속히 간통의 죄를 범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윗처럼 간통의 죄를 범하고 있을까요?
속히 간통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기원합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사울 왕은 자기가 직접 창을 던져 다윗을 두 번이나 죽이려 다가 실패하자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사울 왕은 자기의 딸까지 다윗에게 아내로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8:17,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사울은 자기가 질투하고 두려워하는 다윗을 죽이고자
자기 딸뿐만 아니라 적군인 블레셋 사람들까지 이용했습니다.
그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우리를 두려워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해치려고 수단방법을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식구(특히 부부)끼리 이러면 안 됩니다!

식구(특히 부부)끼리 서로의 약점을 이용하여
서로를 몹시 괴롭히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 사무엘상 1:6, 현대인의 성경).

심히 간교한 사탄은 지금도 요나답 같은 심히 간교한 사람을 배후조정을 하여 ...

심히 간교한 요나답(사무엘하13:3)은

모드 왕자들이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한 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있는 다윗 왕에게 “왕자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암논만 죽었을 뿐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다말을 욕보인 후부터 그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왕자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암논만 죽었습니다”라고 말했는데(31-32절, 현대인의 성경)

실제로 요나답은 암논으로 하여금 다말을 욕보이게 한 배후 조정 인물이었고

그 결과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이기에 암논을 죽이게 만든 사람은

심히 간교한 요나답이라 생각합니다.

심히 간교한 사탄은 지금도 요나답 같은 심히 간교한 사람을 배후조정을 하여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공격하여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주위에 요나답과 같은 간교한 사람의 계획을 꺾으시어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참고: 욕기 5:12, 새번역).

아내가 아무리 계속 울고 졸라 대도

사랑하는 아내가 아무리 계속 울고 졸라 대도

끝까지 견뎌야 할 때는 견뎌야 합니다. 하하

(참고: 사사기 14:17, 현대인의 성경).

아내가 왜 우는지조차도 모르는 남편?

남편 엘가나는 자기의 아내 한나는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한나가 식사를 하지 않을 정도로 한나가 슬퍼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엘가나는 자식이 없는 자기의 아내 한나에게

자기가 10명의 아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여 그리 말했습니다(사무엘상 1:8, 현대인의 성경).

아내가 왜 우는지조차도 모르는 우리 남편들은 결코 아내를 위로하며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상함 받기를 원하는 아버지?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인 사울이

언제나 그가 하는 일을 사소한 것까지 모두 자기에게 말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은 사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결코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런 일(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이라고 해서

나에게 숨길 리가 없어. 결코 그렇지 않을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자기와 요나단과의 우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사울이 아들 요나단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요나단에게 알리지 않은 것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사무엘상 20:1-3, 현대인의 성경).

아무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좋아서 사소한 것까지 모두 다 대화를 한다 할지라도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친구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대놓고 아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봐 말 못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 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이사야 53:10).

그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5절).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사(6절) 십자가에서 죄를 속하는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10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고(에베소서 1:7; 골로새서 1:14)

의롭게 되었습니다(이사야 53:11).

아름답고 본이 되는 시어머니-며느리 관계

과부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과부 며느리인 룯이 재혼하여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기를 위하여

그녀에게 남편을 구해주고자 룯에게 목욕을 한 다음 몸에 향수를 바르고

제일 좋은 옷으로 차려 입고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그녀에게 친절을 베푼 보아스가 잠이 들면

그의 발치로 가서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룯은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룯은 그 날 밤에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지시한 대로 했습니다

(룯기 3:1-6, 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을 묵상할 때

(1)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행복을 생각해야 하고

(2) 며느리는 자기의 행복을 생각하는 시어머니의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할 때에

(3) 고부갈등이란 있을 수가 없고 오히려 아름답고 본이 되는

시어머니-며느리 관계로 견고히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리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서로에게서 거리를 두게 만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아직 한 번도 뵈지 못한 아버지 다윗왕을 뵈려고
요압 장군으로 하여금 자기를 위해 중재역을 해 달라고 부탁하려 했지만
요압이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사무엘하14:29,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하는 수없이 압살롬은 자기 하인들을 시켜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지르게 해서 결국 요압을 만났습니다(30-31절, 현대인의 성경).
그때 압살롬은 요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부른 것은 당신을 왕에게 보내 왕이 나를 볼 생각이 없었다면
무엇때문에 나를 그술에서 데려왔는지 한번 물어봐 달라고 부탁하고 싶었기 때문이오.
내가 차라리 그 곳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소.

이제 나를 왕과 좀 만나게 해 주시오.
만일 나에게 죄가 있다면 왕이 나를 죽여도 좋습니다”(32절, 현대인의 성경).

이 압살롬의 행동과 말을 생각할 때 저는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그리워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을 보고 싶어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자기를 그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놓고서도
2년 동안이나 한 번도 만나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차라리 그술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좋을 뻔했다고까지 요압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아무리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지붕 아래 함께 산다고 할지라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그 사람 사이에 거리를 멀리 두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서로에게 거리를 두게 만들지만,

용서하는 마음은 서로의 거리를 좁힙니다.

아무리 그리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서로에게서 거리를 두게 만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관계가 건강해 보이진 않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자기 동생 다말을 욕보인 일로 암논을 미워하여

아마도 2년 동안 그와 일체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3:22-23,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그 2년이 지난 후

압살롬은 암논을 죽였으므로 도망하여 그술에서 3년간 지냈습니다(38절).

결국 압살롬은 5년 동안이나 아버지 다윗과 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아버지 다윗(39절, 현대인의 성경)은

도망간 압살롬을 3년 동안이나 찾은 것 같지 않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관계가 건강해 보이진 않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의 행위를 본받지 않고 돈을 탐하는 아들을 교회 후임자 목사로 세우면 ...?

사무엘의 두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는 자기 아버지 사무엘과 같이 않아서

돈을 탐하여 뇌물을 받고 재판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행위를 본받지 않는 그들로 인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8:1-5, 현대인의 성경).

아버지 목사님의 행위를 본받지 않고 돈을 탐하는 아들을

교회 후임자 목사로 세우면 그 교회는 어찌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태도를 보고 무척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이 자기가 생명처럼 사랑하는 친구 다윗을

정말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알게 된 요나단은

대단히 화가 나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것처럼 다윗을 모욕하는 자기 아버지의 태도를 보고

무척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0:33-34,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어머니를 모욕하는 우리 아버지의 태도를 보고 무척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악습관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매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려고 할 때마다

부부가 태도의 변함이 없이 서로 비웃고 조롱하며 서로의 약점을 이용하여 몹시 괴롭히고

또한 격분시키는 악습관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참고: 사무엘상 1:6-7, 현대인의 성경).

악한 자들의 악한 행위대로 ...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그들의 악한 행위대로 갚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참고: 사무엘하 3:39, 현대인의 성경).

암논과 다말의 아버지인 다윗도 전혀 책임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심히 간교한 요나답은 이복 누이동생 다말에 대한 애정 때문에 병이 들고
날마다 수심에 잠겨있는 암논에게 쉽게 접근하여 “침대에 누워 병든 척하고 있다가
너의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네 누이동생 다말을 보내
내가 보는 앞에서 음식을 만들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너를 위해 만든 그 음식을 다말이 직접 손으로 먹여 주면
좀 나올 것 같다고 하여라”고 말했습니다.

이 꿈수에는 다말과 암논의 아버지인 다윗을 개입하게 만들어
결국에 가서는 암논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다말로 하여금 암논의 집에 오게 만들었고
그녀로 하여금 침대에 누워 병든 척하고 있는 암논에게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자기 이복 오빠 암논이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어 암논이 누워있는 침실까지 들어가서
직접 먹이게까지 만들었습니다.

결국 다말이 음식을 먹이려고 암논에게 가까이 갔을 때
암논은 다말을 붙잡고 그녀에게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고 강요했습니다.
그러자 다말은 거절했지만 암논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그녀를 덮쳐 강간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13:5-14,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암논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자기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몹시 사랑하고 연모하고 있었던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또한 다윗은 암논인 ‘침대에 누워 병든 척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 암논이 자기에게 “동생 다말을 보내
내가 보는 앞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나에게 먹여 주라고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다윗은 다말에게 사람을 보내 암논의 집에 가서
그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주라고 지시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6-7절, 현대인의 성경).

그 이유는 그것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주는 것과 같은 지시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다말을 사랑하고 연모하여 사모하여 병까지 든 암논에게 다말로 하여금
그의 집에 가서 그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주라고 지시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결과로 암논은 다말을 강간했습니다(14절, 현대인의 성경).

그 책임이 아버지 다윗에게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말이 암논의 집에 가는 것은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사슴이 올라미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잠7:22, 현대인의 성경).

물론 이 모든 간교한 계획의 실행은 심히 간교한 요나답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지만

저는 암논과 다말의 아버지인 다윗도 전혀 책임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암논의 어리석음, 우리의 어리석음?

암논의 어리석음은 그가 몹시 사랑하고 대단히 연모하는 다말의 말 대로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드려서 다말이 암논하고 결혼하는 좋은 방법을 걸어차고

그녀보다 힘이 세므로 그녀를 덮쳐 강간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암논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3:1-2, 12-14, 현대인의 성경).

어리석은 자는 눈 앞에 보이는 즐거움밖에 생각하지 못하기에(전7:4, 현대인의 성경)

그의 마음이 악을 행하는 쪽으로 기울어져서(10:2, 현대인의 성경)

조심없이 함부로 행동하여(잠14:16, 현대인의 성경)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를 받되(14:18, 현대인의 성경)

자기의 고집대로 하다가 죽을 것입니다(1:31, 현대인의 성경).

양심의 가책?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 해매는 사울 왕(사무엘상 24:11, 현대인의 성경)이 용변을 보려고 공공롭게도 자기와 자기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 곳에 들어왔을 때(3절, 현대인의 성경) 자기의 부하들은 “이제 당신의 때가 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원수들을 당신에게 넘겨줄 테니 좋을 때로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하고 속삭이므로

살금살금 사울에게 다가가서 그의 옷자락을 살며시 잘랐습니다(4절,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그 후에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6절,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다윗의 부하들이 말한 것처럼 과연 “지금이 바로 그때”요 다윗의 때(“당신의 때”)였는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들이 말한 “그때” 또는 다윗의 때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는 때요 원수인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때였을 것입니다.

한 마디로, 그때라 사울이 죽임을 당하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엔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때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염두 해 뒀야 합니다.

또 한가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요즘에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해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혹여나 마음 속으로라도

주님의 종에게 “라가”(뜻: 머리가 빈, 헛된, 무가치한)라고 생각하든지

“미련한 놈”이라고 생각한 것(마5:22)을 깨닫고 양심이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남편하고 계속해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 나발이

“성질이 못된 사람”이요 또한 “그는 이름 그대로 미련한 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5:25, 현대인의 성경).

나발의 종들 중에 한 사람은(14절, 현대인의 성경) 자기 주인인 나발이

“막돼먹은 사람”이라 말을 붙여 볼 수도 없었을 정도였습니다(17절, 현대인의 성경).

이러한 나발과 같은 남편하고 어떻게 아비가일은 계속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다”

(잠언 4:6, 현대인의 성경).

어쩔 때에 정면 대결을 피하고 주님으로 하여금 ...

어쩔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정면 공격을 피하고

우리의 대적자들 뒤로 돌아가 공격 태세를 취하고 있길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의 대적자들을 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참고: 사무엘하 5:23-24,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여

어쩔 때에 정면 대결을 피하고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대적자들을 치시도록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인 사울에게 자기가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다윗에 대해 칭찬하면서 다윗은 "죄 없는 사람"이며 "그가 아버지를 해칠 만한 일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9:4-5, 현대인의 성경).

다윗은 요나단에게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 죄가 무엇인데 너의 아버지(사울)는 것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20:1, 현대인의 성경). 다윗은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 만한 죄를 범한 것이 없었습니다.

요나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고 싶어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은 다윗을 질투했고(18:9, 현대인의 성경) 또한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15절).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20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죄가 있어서 벌을 받고 참으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언제나 공정하고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님들을 위해 언제나 공정하고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참고: 사무엘하 8:15, 현대인의 성경).

언젠가는 그 옳지 않은 일의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옳지 않은 거짓된 교인들이 우리를 옳지 않은 방법으로 교회 지도자로 세우게 되면
언젠가는 그 옳지 않은 일의 결과는
언젠가는 그 교인들이 우리를 배반하고
또한 우리를 지지하던 그들이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다
(참고: 사사기 9:23, 25, 현대인의 성경).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배우자를 마음 속으로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참고: 사무엘하 6:16, 현대인의 성경).

여기까지 도우신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막아 주시길 기원합니다
(참고: 사무엘상 7:12-13, 현대인의 성경).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용사의 활을 꺾으시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고: 사무엘상 2:4, 현대인의 성경).

약할 때 강함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통해 오는 모든 능력으로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사 모든 일을 기쁨으로 참고 견디게 하시길 기원합니다
(골로새서 1:11, 현대인의 성경).

영적 전쟁에서 구원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정면으로 부딪혀서 싸울 수 있는 용기는 ...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정면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47-48,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우리 자신과 최악 된 세상과 사탄과 죽음과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구원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정면으로 부딪혀서 싸울 수 있는 용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확신과
우리의 영적 전쟁은 주님께 속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열시하는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큼니다.

목사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님들의 예배를 열시하는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큼니다(참고: 사무엘상 2:17,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도 ...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맞으러 나가지 않았더라면

“나발의 집안 사람 중 내일 아침까지 살아남을 자는 한 사람도 없을” 뻔 했을 정도였는데

그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남편 나발은 큰 잔치를 벌여 놓고

술을 잔뜩 먹고 취해 있었습니다(사무엘상 25:34, 36,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도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 했던 것과 같은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24:38-39).

오늘의 우리의 만남과 헤어짐이 이 땅에서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한 것을 알고 나서는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다윗을 떠나보냈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세 번이나 절한 후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붙들고 입을 맞추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는데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습니다.

이 때 요나단은 다윗에게 "잘 가거라. 우리는 여호와와 이룸으로 서로의 우정을 약속하고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네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여호와께서 영원한 증인이 되실 것이라고 말하였다"라고 말한 후 그들은 서로 헤어졌습니다

(사무엘상 20:41-43,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헤어진 후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사무엘하1:4).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하는 노래를 지었는데

그 노래에 죽은 사랑하는 요나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현대인의 성경) "내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위해 슬퍼하노라. 그대는 나에게 얼마나 사랑스러웠던고! 나에게 대한 그대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깊지 않았던가!](26절).

오늘의 우리의 만남과 헤어짐이 이 땅에서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직 나의 힘이신 주님만 더욱더 의지합니다.

다윗은 헤브론에 자기를 찾아온 아브넬과 그의 부하 20명을
잔치를 베풀어 환대하고 그가 떠날 때에도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무엘하 3:20-21,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다윗의 장군이 요압은 아브넬을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지 않고
아브넬을 죽이므로 자기 동생 아사헬의 원수를 갚았습니다(27, 30절, 현대인의 성경).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 행한 이유는
다윗은 비록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지만
자기 힘이 약하여서 스루야의 두 아들인 요압과 아비새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를 정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39절, 현대인의 성경).
그 당시 이스보셋이나 다윗은 각자 자기들의 장군보다 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으로 말한다면 남편이 아내보다 힘이 없는 것이요,
교회로 말한다면 담임 목사가 장로님보다 힘이 없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다윗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니이다”(시편 18:1)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만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처럼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나는 수없이 영적 전쟁에 패배를 하고 있지만
오직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처럼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참고: 사사기 15:18, 현대인의 성경).

왜 "그 순간 여호와와 성령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므로 그는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이 맨손으로 그 사자를 찢어 버렸"을까요?

갑자기 젊은 사자 한 마리가 덩나로 내려가고 있었던 삼손을 보고 으르렁거리며 달려 나왔을 때
왜 "그 순간 여호와와 성령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므로

그는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이 맨손으로 그 사자를 찢어 버렸"을까요?

(사사기 14:5-6, 현대인의 성경)

혹시 하나님께서는 삼손으로 하여금 이방 민족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God's permissive will)] 블레셋 사람을 치시려는(4절)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God's directive will)을 미리 맛보게 하신 것은 아닐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에 있는 지 3년이 되자

죽은 아들 암논에 대한 슬픔을 거의 잊고 이제는 그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3:38-39, 현대인의 성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리워하고 있는 아들 압살롬을 찾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그는 아직도 자기 아들 암논을 죽인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 나라처럼 왕을 요구한 그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큰 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2:13, 17, 현대인의 성경).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신 것일까요?

우리의 죄악 된 선택의 결과를 통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과 사람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일까요?

(참고: 역대상 12:8)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friendship)에서 배우는 것은 ...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friendship)에서 배우는 것은

주님 안에서 우정이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참고: 사무엘상 20:14, 현대인의 성경).

우리 가정과 교회가 튼튼하다고 생각하는 자만심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사람들은

자기들의 성이 다윗과 그의 군대가 침공할 수 없을 만큼 튼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를 치고자 다윗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올라 갔을 때

“네가 절대로 이리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장님이나 절뚝발이라도 너를 막아낼 수 있다!”하고 큰소리쳤습니다

(사무엘하 5:6,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다윗과 그의 군대는 여부스 사람들을 공격하여

시온 요새를 점령했습니다(7절, 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탄과 그의 군대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침공할 수 없을 만큼

우리 가정과 교회가 튼튼하다고 생각하는 자만심을 매우 경계하고

우리는 항상 깨어 근신하며(베드로전서 5:8)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에베소서 6:17)을 날카롭게 하여

마귀와 그의 간계를 능히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11; 야고보서 4:7).

우리 모두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 되길 기원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가 가지고 온 감람기름을 다윗의 머리에 부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윗을 사로잡아 그 날 이후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사울에게서 떠났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사울을 괴롭혔습니다

(사무엘상 16:13-14, 현대인의 성경).

대조가 됩니다: (1) 성령님과 악령, (2) 다윗은 성령님으로 사로잡힌 바 된 반면에

사울은 악령으로 인해 괴롭힘을 받았음, (3) 성령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반면에 사울에게서는 떠나셨음.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 식구를 잘 인도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가장인 우리 남편들/아버지들과 함께하시므로 우리가 식구를 잘 인도하면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도 우리를 사랑할 것입니다(참고: 사무엘상 18:14, 16, 현대인의 성경).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총애를 받길 기원합니다 (참고: 사무엘상 2:26, 현대인의 성경).

우리 집안에도 경고한 모든 일을 ...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대하여 경고한 그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실행하신 것처럼 (사무엘상 3:12,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도 경고한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실행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위로하시고 ...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위로하시고
그/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고: 룻기 2:13).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몹시 괴롭힘과 업신여감을 당하고
비웃음과 조롱과 학대를 당하므로 울고 음식을 먹지 않을 때가 보통이었던 한나는
고통 속에서 마음이 너무 괴롭고 원통하고 분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았었습니다
(사무엘상 1:6-7, 11, 15-16,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녀에게 아들 사무엘(20절)을 주시므로
그녀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한나를 축복하시고 높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녀를 구해 주셨으므로 한나는 정말 기뻐했습니다(2:1,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한나의 하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1:13, 개역한글; 참고: 시편 30:11).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을 때

사울의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의 집안을 지지하는 자들 가운데서 점점 자기 세력을 굳혀 갔습니다(사무엘하 3:1, 6, 현대인의 성경).

흥미로운 점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아브넬 총사령관(2:8, 현대인의 성경)은 이스보셋에게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 후손들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전체를 다윗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3:9, 현대인의 성경).

또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아브넬이 오랫동안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 싶어했던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 사실을 상기시켰다는 것입니다(17절, 현대인의 성경).

물론 그 목적은 아브넬은 온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다윗을 돕고자 그리한 것입니다(12절, 현대인의 성경).

왜 이스라엘 장로들은 오랫동안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 싶어했을까 생각해 볼 때 저는 그 이유를 이 성경구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군대의 사령관 중 한 사람으로 임명하였다.

그러자 신하들이나 백성들은 다 같이 그 일을 기뻐하였다”(삼상18:5, 현대인의 성경),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는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갔다. …

이스라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윗이 자기들을 잘 인도하므로 그를 사랑하였다”(14, 16절, 현대인의 성경),

“… 모든 신하들도 그를 사랑하므로 …”(22절, 현대인의 성경).

이스라엘 장로들이 오랫동안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 싶어했던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잘 인도하므로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고

우리를 잘 인도해주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는데도 ...

우리가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는데도
그 상대방이 우리와 싸워서 우리를 해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과 그들과 사이에 옳고 그름을 곧 가려 주실 것입니다
(참고: 사사기 11:27,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따라서 살고자 하나님께 기도로 요구하는 것은 ...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이방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라고 요구했을 때
사무엘은 기쁘게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5-7,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따라서 살고자 하나님께 기도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주님)이 되시는 것을 원치 않는 행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블레셋 사람에게 구해 낼
이스라엘 왕을 그리도 원하고 있었던 반면에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를 그리도 원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9:20,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리도 원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7, 10, 24, 32,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 때에는 도움 주기를 거절했으면서 나중에 와서
왜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냐고 불평한다면
어찌 그 불평이 우리가 보기에 합당한 불평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참고: 사사기 12:1-3,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점점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다윗은 점점 강해졌고
하나님께서 떠나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사무엘하 3:1,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점점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면 ...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우리 가운데서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해야 합니다(참고: 사무엘상 7:3,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므로 하나님께 범죄할 때 ...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므로 하나님께 범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경멸하고 모독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참고: 사무엘하 12:13-14,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참고: 사무엘하 11:2,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눈의 욕심에 이끌림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참고: 요한일서 2:16,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여자를 정욕의 눈으로 주목하지 않기로 우리의 눈과 약속을 해야 합니다(참고: 욥기 31:1).
그 이유는 사람의 눈은 만족함이 없기 때문이요(잠언27:20)
또한 음란으로 가득 차서 끊임없이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베드로후서2:14, 현대인의 성경).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보면, 마음도 그것을 따라갑니다. ...
만일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혹을 받게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
여러분의 눈이 어떤 것들을 탐하지 말게 하십시오.
똑바로 앞만 바라보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
여러분은 눈과 연약을 맺고 앞만 똑바로 바라보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 거룩과 하늘만 주목하고 나가십시오”(로이드 존스, "영적 광명").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 힘만으로는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역경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좀 알아야 합니다(참고: 사무엘상 2:9,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몰래 행하겠지만 ...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몰래 행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몰래 행한 악한 일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들춰 내십니다
(참고: 사무엘하 12:12; 에베소서 5:11, 현대인의 성경).

우리도 사울처럼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단을 쌓고 "내가 블레셋 군을 추격해야 합니까?
주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 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 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하나님의 침묵).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무엇인가 잘못되었소.
이 일이 누구 죄 때문인지 한번 알아보시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와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만일 죄를 범한 자가 내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오!"라고 말했을 때
한 사람도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었습니다(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의 침묵)
(사무엘상 14:37-39, 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만 사울에게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도 침묵한 것을 보면
사울 왕이 "무엇인가 잘못되었고. 이 일이 누구 죄 때문인지 한번 알아보시다"
(38절, 현대인의 성경)라고 말했을 때 그 "누구"가 자신인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도 이 비결을 배워서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부하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에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의 진지에 몰래 접근해서
사울의 머리맡에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6:5, 12, 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그의 부하들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하셨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시험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다윗에게 넘겨주시므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인 하나님께서 택하사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을
죽이는지 안 죽이는지 시험하신 것 같습니다(9, 23절, 현대인의 성경).
다윗이 그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비결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신실한 자에게 그대로 갚아 주신다는 것을 믿었고
또한 그는 자기가 사울 왕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게 자기를 구출해 주시길 원했기 때문입니다(23-24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도 이 비결을 배워서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길 기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지키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친구와 약속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지키게 하십니다(참고: 사무엘하 9:1).

우리를 미워하여 쫓아낸 사람들이 ...

우리를 미워하여 쫓아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오게 된 것은 당신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오"라고 말한다면 ...?

(참고: 사사기 11:7-8, 현대인의 성경)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게 하심에 있어서

사무엘에게는 전날 사울이 올 것을 미리 알게 하셨고,

사울은 그의 아버지 기스가 길을 잃고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나귀들을 찾아오라고

사울과 하인 한 사람을 보냈을 때

습 땅의 성읍에서 그 하인이 사울에게 그 성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나귀가 어디 있는지 한번 물어보자고 하므로 가능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게 하신 목적은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심으로 측은한 마음이 드셔서

사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무엘상 9:3-17, 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을 묵상할 때

(1)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기도)를 들으신다는 것과

(2)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측은히 여기신다는 것과

(3) 우리를 그 고통 속에서 구해 내시려고 우리의 삶 속에 만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 주시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와 가정을 위해 우리를 교회와 가정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과
주님의 교회와 가정을 높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길 기원합니다
(참고: 사무엘하 5:12, 현대인의 성경).

우리의 결백함을 어떻게 진실되게 증명해 보여야 할까요?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이 자기와 무관하였기에 “아브넬의 피살 사건에 대해
나와 내 백성은 조금도 죄가 없음을 여호와께서 아신다.
그 죄의 대가가 요압과 그의 모든 가족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3:28,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며 애가까지 지어 불렀습니다
(31-33절, 현대인의 성경).
또한 다윗은 아브넬을 장사하는 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기뻐하며 다윗 왕이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기쁘게 여겼습니다(35절, 현대인의 성경).
“그제서야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다윗의 행동을 보고
그가 아브넬의 살해 사건에 조금도 관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7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 자신의 결백함을 어떻게 진실되게 증명해 보여야 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야고보서 1:5).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참고: 사사기 10:16, 현대인의 성경).

우리의 슬픈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돌이키시는 하나님

엘리 제사장과의 대화 속에서 오해가 풀렸을 때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평안히 가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나는 "제사장님,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나서 한나는 기쁜 마음으로 가서 음식을 먹고 다시는 수심에 싸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17-18, 현대인의 성경).

어떻게 그리도 마음이 괴로워서 슬피 울며 하나님께 간구하던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한 마디에 기쁜 마음으로 변하여 식음전폐를 중단하고 음식을 먹고
다시는 수심에 싸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서 한나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아직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 하나(11절, 현대인의 성경)를 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녀의 슬픈 마음을 돌이켜 기쁜 마음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참고: 시편 30:11; 이사야 35:10; 51:11; 예레미야 31:13).

우리의 악에 대한 대가?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악에 대한 대가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담당케 하셨습니다
(참고: 사사기 9:57; 마태복음 3:17, 갈라디아서 3:13, 신명기 21:23; 로마서 8:3, 현대인의 성경).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은화 1,100개를 훔쳐간 사람이 자기 아들인지도 모르고 저주를 했던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이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에게 은화 1,100개를 가지고 와서 "내가 그것을 훔쳤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아들 미가에게 "내 아들이야,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기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 미가에게 돌려받은 은화 1,100개 중 은화 200개를 은세공업자에게 갖다 주어 자기 아들 미가를 위해 우상을 만들게 하여 그것을 미가에게 주어 미가의 집에 보관되었습니다 (사사기 17장 1-4절, 현대인의 성경).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어떻게 자기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했다가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인 것을 알고도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기 원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저주를 받아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주받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므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축복을 받지 않았나요? (에베소서 1:3, 현대인의 성경)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겸손히 받아들일 뿐입니다.

우리의 입장이 대단히 난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식들 때문에 몹시 슬퍼하고 있는 부모로 인해 우리의 입장이 대단히 난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참고: 사무엘상 30:6, 현대인의 성경).

원수 갚은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다윗에게 보내사

다윗으로 하여금 나발을 직접 죽여 원수를 갚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은
(사무엘상 25:32-33, 현대인의 성경)

나발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발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39절, 현대인의 성경).

저는 다윗이 자기가 직접 나발을 죽여 원수를 갚는 것은 악한 일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우리가 직접 원수에게 복수하는 것은 악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갚아 주겠다.”

위험을 무릅쓰고 ...

모압 땅에서 온 롯이 보아스에 밭에서 일꾼들을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었던 것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젊은 남자 일꾼들이 롯을 건드릴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보아스는 롯에게 "내가 젊은 남자들에게 그대를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타일러 놓았네"라고 말한 내용을 보면 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룻기 2:7, 9, 현대인의 성경).

이러한 위험도 무릅쓰고 롯은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고자 이삭을 줍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유부녀를 슬피 울게 만든 대가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왕은 그의 충성된 군인 우리아를 죽이므로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로 하여금 슬피 울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엘하 11:26, 현대인의 성경).
유부녀를 슬피 울게 만든 대가가 있을 것입니다.

유산, 재산, 권리, 책임?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의 우선권이 있지만
그 권리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지게 되면 우리에게 손해를 보되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만 축낼 수 있기에
오히려 그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룻기 4:4-7, 현대인의 성경).
자신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자신의 재산만을 지키려고 할 때에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산을 잃어버리게 하셔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1:21, 현대인의 성경).

육신적인 거리보다 마음과 특히 감정의 거리를 분명하게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서는 아니될 남자와 여자요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상대방을 몹시 사랑하고 연모하고 있다면
그 둘이 한 방에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간교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상황에 처해있지 않도록 그 두 남녀는 서로에게 건강한 경계선을 긋고
서로에게서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거리보다 마음과 특히 감정의 거리를 분명하게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 사무엘하 13:1-14).

은혜를 호의로 갚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

상대방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므로 나 또한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오해하여 나를 부끄럽게 만들므로 나의 비위를 거슬렀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은혜를 호의로 갚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호의를 오해하여 수치를 준다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참고: 사무엘하 10:2-6, 현대인의 성경).

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합니까?

충성된 군인을 가장 치열한 격전지에 투입시켜 최전방에서 싸우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의도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충성된 군인을 적군의 손에 죽게 하는 것이라면
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합니까? (참고: 사무엘하 11:15, 27)

이 종의 집안이 주님의 축복으로 영원히 복을 누릴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종의 집안을 축복하셔서 이 축복이 주님 앞에서 영원히 지속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이 종의 집안이 주님의 축복으로 영원히 복을 누릴 것입니다

(참고: 사무엘하 7:29, 현대인의 성경).

이 형제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옳고 참된 일일까요?

과연 이 형제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옳고 참된 일이며

우리가 교회 식구들에게 행하는 일이 정당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참고: 사사기 9:16, 현대인의 성경).

"이가뵓"

영광이 떠나면("이가뵓")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사무엘상 4:21-22).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주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괴로운 마음과 슬픔 마음을 돌이켜 평강과 기쁜 마음을 주시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참고: 사무엘상 1:18-19, 현대인의 성경).

이러한 성령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하여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온 다윗을 이스라엘 왕 사울이 대화한 후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깊이 끌려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45-51, 57-58; 18:1, 현대인의 성경).

성경은 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깊이 끌려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사람(사도행전 13:22)에게

우리 마음이 깊이 끌리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우리 생명처럼 사랑케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즉,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깊이 끌려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된 것은

성령님께서 그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를 둔 가정과 교회는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아버지 사울 왕은 자기 아들인 "요나단이 죄 있는 자로 뽑혔"으므로
그에게 "요나단,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쳐서 죽이시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에게 "
'이스라엘이 승리하는데 이처럼 큰 공을 세운 요나단이 죽어야 합니까?
그건 안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머리털 하나라도 잃지 않게 할 것을 살아 계신 여호와와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던들 그가 오늘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며
요나단을 죽음에서 구출해 내었"습니다(사무엘상 14:42-45, 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요나단만 사울 왕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29절, 현대인의 성경)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 왕에게 "그건 안 될 말씀입니다"(45절, 현대인의 성경)라고 말한 것을 보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무엇인가 잘못"된 것인지,
"이 일이 누구 죄 때문인지" 한 번 알아보려고 했을 때(38절, 현대인의 성경)
요나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사울 왕 자신만 몰랐던 것 같습니다.
슬픈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도자인 남편을 둔 가정 식구들과 이러한 지도자인 목사를 둔 교회 식구들은
많은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베풀어 주셨는지요?

주님, 저는 누구며 제 가족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베풀어 주셨는지요?
(참고: 사무엘하 7:18,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살인적인 질투는 어느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리고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질투의 대상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사울 왕이 살인적인 질투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기 시작한 후부터는

(사무엘상 18:9, 현대인의 성경)

- (1) 자기 자신이 창을 다윗에게 던져 두 번이나 죽이려고 했고(10-11절, 현대인의 성경),
- (2) 자기 딸까지 이용하여 다윗을 적군인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17, 21, 25절, 현대인의 성경),
- (3) 이제는 자기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까지 다윗을 죽이라고 지시까지 했습니다(19:1,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살인적인 질투는 어느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리고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질투의 대상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성 관계에서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몹시 사랑하고 있을 때 ...

우리가 이성 관계에서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몹시 사랑하고 대단히 연모하며 사모하다가 병까지 들 정도이지만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가장 간교한 사탄은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에게 쉽게 접근해서

우리에게 “좋은 수(good trick)가 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고 유혹(tempt)합니다
(참고: 사무엘하 13:1-5,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사탄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좋은 수”는

결코 좋은 수가 아니라 매우 나쁜 수(bad trick)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케 하는 꼼수(trick)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왕의 신하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왕은 심한 병에 걸린 자녀가 살아있을 때에는

울고 금식하다가 그 자녀가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식사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하 12:21, 현대인의 성경).

다윗의 답변은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혹시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소.

그러나 이제는 아이가 죽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살릴 수 있겠소?

언젠가 나는 그에게로 가겠지만 그는 나에게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이오”

(22-23절,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저는 첫째 아기 주영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울지도 않고 식사를 잘 하다가

그 아이가 죽은 후에는 통곡하고 식욕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자 힘을 냅시다!’

‘자 힘을 냅시다!

우리 가정과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하여 용감하게 영적 싸움에 임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참고: 사무엘하 10:12, 현대인의 성경).

자기 자신이 마땅히 죽어야 하는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한(사무엘하11:27) 다윗은
자기 자신이 마땅히 죽어야 하는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12:5).
즉,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한 줄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의 양심이 죄로 인해 작동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마비가 되어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에베소서6:17) 우리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찢린 바 되어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참고: 사도행전 2:37-38)
우리의 양심도 마비가 되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한 것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용기를 내어 그 사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요압 장군은 자기의 충성된 군인 우리아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다윗 왕의 지시를 거부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만한 용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만큼 자기의 충성된 군인인 우리아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왕을 향한 요압 장군의 맹목적인 충성과 순종은
결국 다윗왕이 살인죄를 범하는데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11:14-25, 현대인의 성경).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용기를 내어 그 사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권력을 향한 맹목적인 충성과 순종은 그저 권력자의 죄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자녀 양육의 제일 좋은 비결?

자녀 양육의 제일 좋은 비결은

우리 부모가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참고: 사사기 13:13-14, 현대인의 성경).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겠다고 할 때에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와 결혼하겠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인 줄을 알지 못하고 완강하게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사사기 14:1-4, 현대인의 성경).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를 때가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빠의 자격이 없는 저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딜런, 예리, 예은이를 생각하면

그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를 때가 수 없이 많았었다고 고백합니다

(참고: 사사기 12:8, 12, 현대인의 성경).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사랑하는 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모를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저보다 딜런, 예리, 예은이를 더욱 사랑하시돼

어느 누구보다 제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세 자녀들을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자녀를 계속해서 돕고자 합니다.

자비를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참고: 사무엘하 7:15, 현대인의 성경).

자식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기 싫어하는 아버지는 ...

아버지 다윗왕은 잔치를 베푼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초청했을 때
압살롬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될 것” 같아
그 잔치에 가지 않고 압살롬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 때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그러시다면 내 형 암논이라도 우리와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하자
다윗 왕은 “암논이 너와 함께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계속 간청하므로
다윗왕은 암논이 압살롬과 함께 가야 할 이유를 모르면서도
암논과 다른 모든 왕자들을 압살롬과 함께 보냈습니다
(사무엘하 13:25-27, 현대인의 성경).
자식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기 싫어하는 아버지는
그 자식이 자기에게 간청하는 영문도 모른 채
그가 계속 간청하므로 그 자식의 간청을 들어줍니다.

자식을 용서하지 않는 아버지?

결국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여자 한 사람을 데려오게 하여

(사무엘하 14:2, 현대인의 성경)

그녀에게 할 말을 알려준 후 다윗 왕에게 보냈습니다(19절, 현대인의 성경).

그 지혜로운 여자가 다윗 왕에게 “대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니

죄 있는 사람처럼 되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13절, 현대인의 성경).

그 이유는 다윗 왕은 그 여인의 집안 문제는 자기가 맡아서

아무도 그녀의 남은 한 아들[다른 아들과 서로 싸우다가 쳐죽인 아들(6절, 현대인의 성경)]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8절, 현대인의 성경)

“내가 살아 계신 여호와와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11절, 현대인의 성경)라고 말했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망명 중에 있는 아들 압살롬을 왕궁으로 데려오지 않고 있었기에

그는 그 지혜로운 여자가 보기에 “죄 있는 사람처럼” 된 것입니다(13절,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다윗 왕은 “죄 있는 사람처럼”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는 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죄란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은 죄입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암논을 죽인 다른 아들 압살롬을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하여 그술에 있는 지 3년이 되어서야

죽은 아들 암논에 대한 슬픔은 거의 잊고

그 때서야 그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13:38-39,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다윗은 결국에 가서는 압살롬을 그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했지만(21절)

그로 하여금 자기 집에 가서 머물러 있게 하고 자기 앞에 2년 동안이나 나타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압살롬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24, 28절, 현대인의 성경).

만일 다윗이 진심으로 아들 압살롬을 용서했다면

그술에 3년 동안이나 있으므로 못보았던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데려오게 해 놓고서

또 다시 2년 동안이나 자기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용서한 자식을 5년 동안이나 안 보고 지낼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다윗은 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식을 용서하지 않은 아버지였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알 때까지

(사무엘상 22:3,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재혼한 여러분도 축복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재혼한 뜻을 축복하셨듯이

(룻기 4:13, 현대인의 성경)

재혼한 여러분도 축복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저 같이 가장 작고 또한 가장 보잘것 없는 자를 ...

사울은 사무엘에게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며

게다가 우리 가족은 우리 지파의 모든 집안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 없는 집안인데

어째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라고 말했지만,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하인을 데리고 큰 객실로 들어가 그들을 귀빈석에 앉히고

그런 다음 그들을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가장 맛있는 고기로 사울을 대접했습니다

(사무엘상 9:21-24, 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저 같이 가장 작고 또한 가장 보잘것 없는 자를

천국에서 귀빈석에 앉게 하시고 그런 다음 미리 준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것으로

저를 대접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적군보다 우리를 질투하고 미워하는 아군이 더 위험합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에게 자기보다 더 높임을 받은 다윗으로 인해
그 날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다가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이 보낸 악령이 강하게 사울을 사로잡자
그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떠들어대다가
자기 곁에 세워 둔 창을 갑자기 다윗에게 던져 다윗을 벽에 박아 버리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던진 창을 두 번이나 피해 도망한 것을 보면
사울은 다윗을 두 번이나 죽이려고 창을 던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8:6-11,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질투라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다윗은 적군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피해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그를 향해 달려갔었는데(17:48, 현대인의 성경)
오히려 아군이 사울 왕으로부터는 피해 도망갔다는 사실입니다(18:11, 현대인의 성경).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어쩔 때는 적군보다
우리를 질투하고 미워하는 아군이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강성해 갔습니다
(사무엘하 5:10, 현대인의 성경).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강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면대결 및 정통으로 정곡을 찢러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정면"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던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며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끄집어내어 물매로 그에게 던지자
그 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 꽃히므로 그는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칼 하나 없이 물매와 돌 하나만 가지고서
그 블레셋 거인을 쓰러뜨리고 "달려가"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그것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목을 베어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7:48-51, 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정면 대결해야 하며 또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에베소서 6:17)
정통으로 대적자의 정곡을 찢러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교훈도 받습니다(참고: 시편 119:32).

제가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갚고 있을 때에도 ...

나발과 나발의 전 가족을 해하기로 이미 작정하고(사무엘상 25:17, 현대인의 성경)
나발의 집으로 칼을 400명의 부하들(13절)과 함께 가고 있었던 다윗은
훈자 “이 자(나발)를 도와준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우리는 광야에서 그의 양떼를 지켜 하나도 손실이 없도록 하였는데 그가 나의 선을 악으로 갚는구나!
만일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들을 모조리 죽이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남겨 둔다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기 원한다”고 증언거렸습니다(21-22절, 현대인의 성경).
그 때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에게 지혜롭게 말하므로(23-30절, 현대인의 성경)
다윗으로 하여금 직접 나발과 그의 가족을 죽여 원수를 갚지 않도록 막았습니다(33절,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갚고 있을 때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은 저를 마땅히 징벌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되시는 의로우신 예수님께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를 변호해 주시므로 말미암아(요한일서 2:1, 현대인의 성경)
제가 마땅히 밧아야 할 하나님의 징벌을 막아주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를 우리에게 갚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서는 악을 행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갚지 않으시고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갚으셨습니다

(참고: 사사기 9:24, 56, 현대인의 성경).

주님 안에서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마음이 다윗에게 깊이 끌려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기에

그와 영원한 우정을 약속하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겔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으며

또 자기 갑옷과 칼과 활과 띠도 주었습니다(사무엘상 18:1, 3-4,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요나단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15).

하나님께서서는 욕심을 내는 우리에게 ‘만일 이미 내가 너에게 준 것들이 부족하였다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고: 사무엘하 12:8,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자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내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려 주신 축복들로 만족하지 못하기에

십계명을 어기고 우리 이웃이 소유한 것을 탐냅니다

(출애굽기 20:17, 현대인의 성경).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서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15).

주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참고: 사무엘하 7:24, 현대인의 성경).

주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오직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과 요한복음 6장 1-15절 약속을 하셨습니다
(참고: 사무엘하 7:28, 현대인의 성경).

주님의 종의 가정을 주님 앞에서 견고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저와 제 집안에 관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시사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높여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하시고
주님의 종의 가정을 주님 앞에서 견고하게 하소서
(참고: 사무엘하 7:25-26, 현대인의 성경).

주님의 친구 사랑의 아름다움과 귀함은 우리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다윗을 향한 그의 친구 요나단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깊었습니다

(사무엘하 1:26,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께서서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13,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과 원수 된 우리(로마서 5:10)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44, 현대인의 성경).

여인의 사랑보다 깊은 요나단과 같은 친구의 사랑도 아름답고 귀하지만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친구 사랑의 아름다움과 귀함은

우리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내려 주신 축복들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은 욕심과 탐심을 낼 위험이 참 많습니다.

왜 “양과 소를 아주 많이 가진 부자”는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 한 분을 대접함에 있어서

“자기의 양과 소는 아까워서 잡지 못하고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양 양을 빼앗아 다가

그것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한 것일까요?

(사무엘하 12:1-4, 현대인의 성경)

혹시 그 부자의 욕심과 탐심 때문은 아닐까요?

욕심이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아주 많은 양과 소는 아까워서 잡지 못하게 한 것이요,

탐심이란 그 가난한 사람의 양 양을 빼앗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내려 주신 축복들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은 욕심과 탐심을 낼 위험이 참 많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도망갔을 때

가드 사람 잇대에게 “... 너는 네 동족들을 데리고 돌아가거라 ...”고 말했지만

잇대는 다윗에게 “내가 살아 계신 여호와 앞에서 목숨을 걸고 맹세하지만

죽든지 살든지 왕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무엘하 15:19-21,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모압 며느리 룯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대답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저에게 억지로 어머니 곁을 떠나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어머니와 함께 가게 해 주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 저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묻힐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에 만일 제가 어머니 곁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시기 원합니다”

(룯기 1:16-17, 현대인의 성경).

잇대나 룯의 공통점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겠다고 굳게 결심하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굳게 결심하되

죽든지 살든지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며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헌신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사울 왕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너와 네 친척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말했는데

(사무엘상22:16, 현대인의 성경)

실제로 죽어 마땅한 사람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이었습니다

(참고: 사무엘상 15장).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에게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만 누구든지 그런 짓을 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사무엘하12:5, 현대인의 성경).

그 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7절, 현대인의 성경).

죽어 마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저 육신적으로만 죽어

마땅한 하나님과 원수 된 죄인(로마서 5:8, 10)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한일서1:2, 5:20, 현대인의 성경)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므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고(중생, 첫 번째 부활)(디도서 3:5),

새 사람이 되었고(고린도후서5:17, 현대인의 성경),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요한복음3:15,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예수님의 재림) 죽은 성도님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며(두 번째 부활)(데살로니가전서 4:16, 현대인의 성경)

그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님들은 홀연히 변화 받아(고린도전서 15:51)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

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17, 현대인의 성경).

죽음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

요나단은 죽음일보 직전에 있었던 다윗에게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0:3-4, 현대인의 성경).

그 이유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18:1,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을 알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될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지도자의 믿음을 보고 ...

따르는 자는 지도자의 믿음을 보고 그 지도자와 마음을 같이 하여 따라야 합니다

(참고: 사무엘상 14:6-7).

지도자의 책임

만일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지도자는 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므로

자기도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르는 자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랑으로 그들을 책망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해야 합니다

(참고: 사무엘상 15:24, 현대인의 성경; 에스겔 2:5, 7; 3:11).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 잘못임을 알고 고백합니다.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은
미련한 남편 나발의 잘못으로 인해 닳친 가정의 위기를 모면함에 있어서
다윗에게 “모든 것은 내 잘못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5:24, 현대인의 성경).
미련한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지만,
지혜로운 아내는 모든 것이 자기 잘못임을 알고 고백합니다.

"진실한 말은 설득력이 있는 법이다."

남편은 간음하고 친절으로 달아난 첩을 설득하여 다시 집으로 데려오려고 하고,
그를 보고 기쁘게 영접한 그의 장인은
그를 자기 집에 좀 더 머물게 하려고 설득하는 모습(사사기 19:3, 7, 현대인의 성경)을 볼 때
결국에는 그 남편은 자신의 첩을 설득하였고 또한 장인의 설득을 당하다가
나중에 장인의 말 대로 하룻밤 더 머무는 것을 거절하고
자신의 첩을 데리고 그녀의 장인의 집을 떠납니다(10절, 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설득"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언제나 신중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잠언 16:23, 현대인의 성경),
"호감을 주는 말은 설득력을 불러 일으킨다..."(21절, 현대인의 성경),
"인내력 있는 설득은 완강한 통치자의 마음도 돌이켜 놓을 수 있으며
부드러운 혀는 뼈도 꺾을 수 있다"(25:15, 현대인의 성경),
"진실한 말은 설득력이 있는 법이다 ..."
(욥기 6:25, 현대인의 성경).

진정 "나의 탓"인 줄 알고 있다면 ...

“나의 탓”(사무엘상22:22)인 줄 진정 알고 있다면
우리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참고: 23절, 현대인의 성경).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심을 믿고 있다면 ...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심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가 말한대로 행해야 합니다
(참고: 사사기 11:10, 현대인의 성경).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참고: 사무엘상 18:12, 현대인의 성경).

진정한 친구는 사랑하는 친구에게 짐이 되기보다 도움을 줍니다.

다윗의 신실한 친구인 후새는 다윗에게 짐이 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무엘하 15:33, 현대인의 성경).
진정한 친구는 사랑하는 친구에게 짐이 되기보다 도움을 줍니다.

질투는 상대방을 빼돌게 보게 만듭니다.

질투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울 왕(사무엘상18:9, 현대인의 성경)은
자기 사위요 자기 신하들 중에 충실한 자요 궁중 모든 사람들에게도 높이 존경을 받는
다윗(22:14, 현대인의 성경)을 자기를 반역하는 자요,
자기를 칠 기회만 노리는 자요, 자기를 죽일 기회만 노리는 자로 여겼습니다
(8, 13절,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질투는 상대방을 그 모습 그대로 정확히 못 보게 만들고 오히려 빼돌게 보게 만듭니다.

질투는 어리석은 자를 죽이는 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은 자기 나라를 침략하는 적군인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의 충성된 사람이요 아군인 다윗 한 사람을 끈질기게 추격하여 죽이려고 한 것을 보면
(사무엘상23장) 그는 어리석은 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통치자는 자기 백성을 탄압하여도 청렴한 통치자는 정치 생명이 길 것이다”
(잠언 28:16, 현대인의 성경),
“분노는 미련한 자를 죽이고 질투는 어리석은 자를 죽이는 법이다”
(욥기5:2, 현대인의 성경).

충분히 어리석은 일을 행할 위험이 많습니다.

한 이성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연모하여 병까지 들정도라면

충분히 어리석은 일을 행할 위험이 많습니다

(참고: 사무엘하 13:1-2, 13).

충분히 착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이 내게서 떠나고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사무엘에게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였소"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5:10, 13, 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을 묵상할 때

(1)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다고 충분히 착각할 수 있으며,

(2) 사무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어떻게 사울 왕의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을 때가 있지는 않지요?

친구 다윗을 옹호(defend)하는 요나단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에게 요나단은 자기가 생명처럼 사랑하는 친구 다윗을 칭찬하면서 "아버지, 신하 다윗을 해하지 마십시오. 그가 아버지를 해칠 만한 일은 조금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에 아버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가서 골리앗을 죽인 것과

그리고 그 결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주셨던 일을 잊으셨습니까?

아버지는 그때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쩌서 아버지는 이제 와서 것처럼 죄 없는 사람을 죽여 범죄하려고 하십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9:4-5,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자기에게 노발대발하면서

"이 미친 놈아! 네가 네 자신의 수치와 네 어미의 수치도 모르고

천한 이새의 아들 쪽을 택한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그 녀석이 살아 있는 한 너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당장 가서 그를 끌어오너라.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에도

또 다시 사울에게 "어째서 그가 죽어야 합니까?

그가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따졌습니다(20:30-32, 현대인의 성경).

사랑하는 친구 다윗을 옹호(defend)하는 요나단을 생각할 때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시편 72:4).

친절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사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제가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해 주세요.

혹시 친절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제가 그를 따라다니며 이삭을 줍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룻은 이삭을 주을 수 있는 밭(일할 수 있는 곳)이 정해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 나오미가 "내 딸아, 가거라"하고 말씀을 하셔서

룻은 밭으로 나아갔는데 공교롭게도 그 곳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의 밭이었고

또한 보아스의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람이 모압 땅에서 나오미와 함께 온 룻이

자기에게 일꾼들을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줍게 해 달라고 부탁한 것을 들어줘서

룻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줍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룻기 2:1-7, 현대인의 성경).

큰 잘못 vs. 큰 일

미련한 사울 왕은 어리석게도 “큰 잘못”을 범하고 또 범했지만

다윗이 “큰 일”을 할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6:21, 25, 현대인의 성경).

미련한 자는 큰 잘못을 거듭 범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큰 일을 하며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탐심은 탈취하게 만듭니다.

사울 왕은 탐심 속에서 적의 좋은 것을 탈취하는 데만 급급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사무엘상 15:19, 현대인의 성경).

탐심은 탈취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입니다(19절).

틈만 보이면 우리를 함정에 빠뜨려서 우리를 해하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가 질투해서 죽이려고 한 다윗을

자기 딸 미갈이 사랑하는 것을 듣고 기뻐하여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왔구나! 내가 미갈을 다윗에게 주고 딸을 이용해서
그를 함정에 빠뜨려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해야지”

(사무엘상 18:20-21, 현대인의 성경).

우리를 질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틈만 보이면

우리를 함정에 빠뜨려서 우리를 해하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좋은 것은 ...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라도

우리가 보기에 제일 좋은 것은 모두 남기고 없애기를 원치 않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보기에 제일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모두다 없애 버리는 것입니다

(참고: 사무엘상 15:9,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참고: 사무엘상 16:7,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빚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빚어주시사 ...

다윗을 찾으러 3,000명의 정예병을 이끌고 십 사람들이 알려준 대로
다윗이 숨어 있는 유다 광야 맞은편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쳤던 사울 왕은
그의 진지에서 그의 군 사령관 아브넬과 잠을 자고 있었고
그 주변에 있는 그의 부하들도 졸고 있었습니다.
그 때 다윗은 사울이 도착한 것을 알고 정찰병들을 보내 그의 동향을 살피도록 한 후
그 날 밤 사울의 진지에 몰래 접근하여 사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지까지 간 다윗은 잠을 자고 있는 사울 왕을 보고
아비새가 다윗에게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서 저 창으로 그를 찔러 땅에 꽂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단번에 해치우겠습니다”라고 조용히 말하자
“그건 안 된다. 그를 죽이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을 해하는 자가 어찌 죄가 없겠느냐?”
분명히 말하지만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니
그는 죽을 때가 되어 죽거나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다”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6:1-11, 현대인의 성경).
흥미로운 점은 사무엘상 24장에 다윗을 찾으러 정예병 3,000명을 이끌고
들염소 바위가 있는 곳으로 갔다가 다윗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던 사울 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 하여
사울을 해치지 않았던 다윗이 사무엘상 25장에서는 자기의 선을 악으로 갚은
미련한 나발을 직접 자기의 손으로 죽여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려다가 하나님께서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을 보내사 막으셨는데
이렇게 사무엘상 26장에 와서 다윗은 정예병 3,0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찾으러 온 사울 왕을
그의 진지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때 또 다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해하므로 죄를 범하지 않고
오히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치실 것임을 확신하는 말을 아비새에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묵상할 때 사무엘상 24장에서 26장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빚으시사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행하므로 죄를 범하지 않게 막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 왕 사이를 판단하사
다윗을 위하여 사울 왕에게 보복하실 것(24:12)을 확신케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니
그는 죽을 때가 되어 죽거나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26:10,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빚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빚어주시사
점진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행하므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복하실 것이라는 확신도 주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보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시길 기원합니다.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에 사울 왕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가서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을 죽였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때 사울 왕은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은 다윗을 해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살인적인 질투의 눈으로 다윗을 보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까닭 없이 죄 없는 다윗을 죽여 하나님께 범죄하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8:9; 19:4-5, 현대인의 성경).
혹시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상대방은 우리를 최선을 대해 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그 상대방에게 해침을 받을 만한 일을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은 이유가 전혀 없이 죄 없는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시되(예레미야 애가 3:59)
우리를 그 상대방의 손에서 건져주시길 기원합니다(사무엘상 24:15).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계셔서 ...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같은 우리 자녀들이 점점 성장해 갈 때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다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길 기원합니다
(참고: 사무엘상 3:19,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시사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길 기원합니다(참고: 사사기 13:24-25,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행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 왕을 해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에
그의 옷자락만 살며시 벤 후에도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다윗(사무엘상 24:4-6, 현대인의 성경)은
아무리 자기의 부하들을 모욕하고(25:14) 자기의 선을 악으로 갚았다(21절, 현대인의 성경)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발과 그의 전 가족을 자기의 손으로 직접 죽여 보복하려고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26절,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다윗에게 보내사
다윗으로 하여금 사람을 직접 죽여 원수를 갚지 않도록 막아 주신 것입니다(32-33절,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행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행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막아주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받치고 있나요?

자식을 낳지 못했던 여자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곧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한 것도
그 여자에게는 매우 놀랄 수밖에 없는 소식인데
더 나아가서 '그 아이는 태어날 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이 될 것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참고: 사사기 12:3, 7, 현대인의 성경)
만일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우리에게 자식을 선물로 주셨을 때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그 자녀를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받칠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받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 축복을 요구할 수 있나요?
결코 없습니다! (참고: 사사기 11:23,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주로 인해 ...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주로 인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안겨주시고
또한 나이 많은 우리를 잘 보살펴 주게 하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참고: 룻기 4:15,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분리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출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다윗을 추격하였던 사울 왕은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그 광야의 남쪽에 있는
마온 황무지로 더 깊이 들어”갔을 때 “그 곳까지 그들을 따라갔”습니다(사무엘상 23:24, 현대인의 성경).
다윗이 사울을 급히 피하려고 하였지만
사울과 그의 군대가 다윗을 잡으려고 포위망을 좁히고 있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침략해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하는 수 없이” 다윗의 추격을 포기하고 블레셋 군과 싸우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때 이후로 그 곳을 ‘분리의 산’[“셀라하마느곳”(개역개정):
“분리하는 바위”라는 의미]이라고 불렀”습니다(28절,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으로 하여금 다윗을 추격하는 그의 끈질긴 추격전을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시 침략하도록 허락하시므로
사울의 마음을 분리시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사울로 하여금
하는 수 없이 다윗의 추격을 포기하게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울이 그의 군대와 다윗을 잡으려고 포위망을 좁히고 있었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침략해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분리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출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없이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이것저것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없이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참고: 사무엘상 17:47,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귀족처럼 대우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가난한 자를 티끌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찻더미 가운데서도 일으켜 그를 귀족처럼 대우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2:8,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서는 인자하심을 영원히 끊어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하여 그의 절뚝발이 아들인 므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므비보셋에게 므비보셋의 할아버지인 사울이 소유했던 땅을 모두 므비보셋에게 돌려주고 또한 므비보셋으로 하여금 항상 다윗의 식탁에서 먹도록 했습니다(사무엘하 9:3, 7, 현대인의 성경).
그 이유는 다윗은 요나단이 살아생전에 그와 맺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현대인의 성경) “... 내 가족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사무엘상 20:15).
이렇게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하여 므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므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 다시 절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종이 무엇인데 대왕께서 죽은 개와 같은 저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십니까?”
(사무엘하 9:8,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죽은 개보다 못한 저에게
하나님께서서는 인자하심을 영원히 끊어 버리지 않으시고
저와 제 가족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주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저 같이 “보잘것 없는 사람”을 ...

하나님께서서는 양을 치던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으셨고 또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다윗 앞에서 모든 대적을 파멸시키셨습니다(사무엘하 7:8-9,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는 저 같이 “보잘것 없는 사람”(사무엘상 18:23, 현대인의 성경)을 승리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로 삼으셔서 지난 약 20여년 동안 저와 함께 하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대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울의 총사령관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고 이미 다윗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알고(믿고) 있었습니다(사무엘하 3:18).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랫동안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 싶어했던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상기시킨 것입니다(17절, 현대인의 성경). 아브넬은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도 이 말을 했습니다(19절, 현대인의 성경). 결국 아브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21절,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정해 놓으신 다윗(사무엘상 16:1, 12, 현대인의 성경)과 함께 하시므로 그를 점점 강해지게 하시사(사무엘하 3:1, 현대인의 성경) 결국에 가서는 사울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브넬까지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21절,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로마서 12:2, 현대인의 성경)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키실 것이지만,
악인은 어둠 속에서 말없이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2:9,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일라로 갔었을 때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자기를 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3:9,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그일라로 내려와서
이 성을 쑥밭으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을 주의 종이 들었습니다.
그일라 주민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들은 대로 사울이 정말 내려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에게 일러 주소서”(10-11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고(11절, 현대인의 성경)
다윗은 “그러면 그일라 주민들이 나와 내 부하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준다는 말입니까?” 하고
다시 묻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12절,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분명히 그는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출해줬는데
어떻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줄 수 있는지
충분히 분노하고 원망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잡혀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하들도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을 무릅 쓰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사울 왕에게 넘겨줄 수 있던 말입니까.
다윗이 그들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일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정도로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고 싶어했기에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면 자기들이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약 600명의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즉시 그일라를 떠나
이곳 저곳 계속 이동하였”고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했다는 말을 듣고
그의 계획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13절, 현대인의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자의 식구를 통해서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버지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 뿐만 아니라 그의 딸인 미갈도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9:1-7, 11-12).
하나님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자의 식구를 통해서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지나간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다윗은 전과 같이 "다시" 사울 왕을 섬기게 되었고,

그 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은 병력을 이끌고 나가 블레셋 군과 싸워 승리했고,

사울 왕은 또 다시 손에 들고 있던 단창으로 다윗에게 던져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9:7-10; 참고: 18:11).

이렇게 우리 인생에도 반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5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지금 있는 일도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전에 다 있었던 일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나간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하신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하나님의 종에게 힘을 주시며 큰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참고: 사무엘상 2:10,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의지하라”고 격려합니다.

다윗이 호레쉬 부근에 있을 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심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 그를 찾았지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가 호레쉬에서 그를 만나고

그에게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의지하라”고 격려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아버지가 절대로 너를 찾지 못할 것이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우리 아버지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하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3:14-17, 현대인의 성경).

저는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찾은 반면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격려하려고 찾았다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의지하라고 격려하는 요나단의 말대로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의지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고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찾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즉, 요나단이 다윗에게 “우리 아버지가 절대로 너를 찾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한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요나단의 격려로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의지한 다윗을

사울로 하여금 찾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붙들어 줘야 합니다

(이사야35:3,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하고 언제나 믿음에서 살라고 그들을 격려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4:22,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서는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들이시고 그

들을 격려하시며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시편 10:17,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누구든지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할 것이다"
(사무엘상 2:30,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을 저버리는 요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어
이집트 사람들과 그들을 괴롭히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 주신 하나님이지요
그들을 모든 재난과 고통에서 구출한 그들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왕을 세워 주시길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상 10:18-19,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요구하는 것들 중
혹여나 하나님을 저버리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아성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그분을 진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참고: 사무엘상 12:20,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경고를 겸손히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을 우리 가정의 왕으로 더 이상 모시거나 섬기지 않고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겸손히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참고: 사무엘상 8:9,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구원은 ...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은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4:6,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인 보아스의 하녀 중의 하나와도 같지 못한 이삭을 줍는 일꾼 룯은
보아스가 불러 함께 식사하자는 말을 듣고 일꾼들과 함께 앉아 보아스가 주는 음식을 실컷 먹었습니다
(룯기 2:14, 현대인의 성경).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훈인 잔치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실컷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는 사울을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

이제 너는 ...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라는 사람을 찾아라.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사람을 벌써 정해 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왕이 사울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을 이미 버리셨고

이새의 아들들 중 다윗을 새 왕으로 벌써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만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을 사울 왕이 알면

사무엘을 죽일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사무엘상 16:1-4,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15:22)고 말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저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대로

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예배나 전도나 선교나 봉사나 헌금 등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참고: 사무엘상 15:22,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힘들 때에 ...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힘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본 적이 없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를 분별하기가 매우 힘들 수가 있습니다

(참고: 사무엘상 3:1, 4-8,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참고: 사사기 14:6, 19; 로마서 8:37,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악인을 선대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옛날 속담인 “악은 악인에게서 나온다”라고 말했고,

사울 왕은 다윗에게 “네가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을 보니 나보다 낫구나”라고 말한 것

(사무엘상 24:13, 17,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은 자기가 악인임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 악인을 다윗이 선대한 것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야 한다(누가복음 6:27)는 교훈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33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내려 주신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업신 여길 위험이 참 많습니다
(참고: 사무엘하 12:9-10).

하나님의 일하심이 흥미롭습니다.

사울 왕의 신하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악령이
사울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사무엘상 16:15, 현대인의 성경).
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 중 한 사람은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의 8명의 아들들 중
하나님께서 막내 아들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흥미롭습니다
(18절,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될 다윗을 보는 순간 그를 대견스럽게 여겨 사랑하고
그를 자기 호위병으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21절,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일하심이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God's directive will)을 이루심에 있어서 서곡과 같은 것

하나님께서서는 삼손으로 하여금

이방 민족 블레셋 여자와의 결혼하고 싶어하는 것을 허락하시사[하나님의 허락하신 뜻(God's permissive will)] 덩나로 내려가고 있었던 삼손에게

'여호와와의 성령께서 힘을 주시므로' 으르렁거리며 달려 나온 젊은 사자를 찢어 버리게 하셨고

또한 "여호와와의 성령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시므로"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 곳 주민 30명을 죽인 것은

블레셋 사람을 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God's directive will)을 이루심에 있어서

서곡과 같은 것이었습니다(사사기 14:1-6, 19,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참고: 사사기 11:8-9, 현대인의 성경).

한 사람이 돈을 우상화하면 ...

미가라는 한 사람의 집안의 우상들이 단 지파라는 한 지파의 우상들이 되었습니다

(사사기 18:31, 현대인의 성경).

한 사람이 돈을 우상화하면 그 집안 식구들이 돈을 우상화 할 위험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교회가 돈을 우상화하며

수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돈을 우상화는 죄를 충분히 범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해하려고 하는 속셈?

겉으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마음 속으로는 우리를 질투해서 우리는 해하려고 하는 속셈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 사무엘상 18:22, 25, 현대인의 성경).

행실이 나쁜 목사님의 자녀들?

행실이 나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목사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참고: 사무엘상 2:12)

현숙한 여인과 결혼해야 합니다.

보아스는 남편과 사별하여 과부가 된 룯이 시어머니를 받들어 섬기는 것을 볼 때

그녀의 정성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보아스는 룯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룯기 3:10-11,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결국 보아스는 룯과 결혼합니다(4:13, 현대인의 성경).

인간적으로 보면 보아스에 입장에서 룯과 결혼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룯은 한번 결혼했다고 남편과 사별한 과부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유대인이 아닌 모압(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재산을 다 잃고 빈손이 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룯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그녀가 현숙한 여인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고 2년 동안이나 미워했던 것이 아닐까요?

왜 압살롬은 자신의 “아름다운 딸”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었을까요?

(사무엘하 14:27, 현대인의 성경)

혹시 그는 자신의 “아름다운 여동생” “다말”을 생각하고

같은 이름을 자신의 딸에게 지어준 것이 아닐까요?(13:1, 현대인의 성경)

그 정도로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 다말을 사랑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여동생 다말을

암논이 강간하고(14절, 현대인의 성경) 욱보였으니(32절, 현대인의 성경)

압살롬이 얼마나 암논을 미워했으면 그와 일제 말을 하지 않았다가(22절, 현대인의 성경)

“그로부터 2년 후에”(23절, 현대인의 성경) 암논을 죽였을까요? (29절, 현대인의 성경)

흥미로운 점은 압살롬이 암논을 2년 동안 미워하다가 그를 죽였는데,

그의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해 놓고

2년 동안이나(14:28, 현대인의 성경) 그로하여금 자기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압살롬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24절, 현대인의 성경).

그 말은 혹시 압살롬이 암논을 2년 동안 미워했듯이(그를 죽이기 전까지)

다윗은 압살롬을 2년 동안 미워했던 것이 아닐까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십시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We rejoice in the hope of the glory of God)(로마서5:2)라는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We also rejoice in our sufferings)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3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영광(데살로니가전서 4:13-17; 고린도전서 15:51-52; 빌립보서 3:21)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We rejoice and will continue to rejoice because Christ is preached)
(빌립보서 1:18).
그러므로 우리는 “깊은 옥”(사도행전 16:24)에 가둔 바 된 것 같을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25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에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합니다
(시편 42:5, 11; 43:5).
그 이유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5:12, 13).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기 자녀로 예정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4-6,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내가 종일 주를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시편 71:8, 현대인의 성경).